

오늘부터 휘발유 가격 0당 65원 오른다 **6**

트럼프 변덕에...중 상하이 지수 5.58% 폭락 **8**

<도취감>

## ‘유포리아 투자’ 젊은 총수, 경제지도 바꾼다

### 스페셜 리포트

“내 나이 73세, 비록 인생의 만기(晩期)이지만,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어렵더라도 전력투구해야 할 때가 왔다.” 삼성 창업주 고(故) 호암 이병철 회장이 ‘호암 자전’을 통해 밝힌 1983년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의 각오다. ▶관련기사 3면

36년이 지난 올해 초, 호암의 손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묻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한다.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

재계 오너 3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기업 투자 패턴이 바뀌고 있다. 이병철

### 열린 소통·자신감으로 구조조정·미래 먹거리 발굴 속도 선대 경영방식 고집 않고 ‘fun 경영’ 기업 체질변화 주도

이건희·정주영·정몽구·구본무 등 그룹을 일군 1~2세대 총수들은 국가 경제 발전이란 ‘의무감’, ‘사명감’을 어깨에 진 채 투자 및 사업 확장에 나섰다.

그러나 후세 총수들은 자신들이 세계 경영환경 변화를 직접 살피며 선도 투자에 나선다. 젊은 시절 해외유학 등을 거쳐 글로벌 트렌드를 습득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갖춘 일종의 편(fun)한 투자로 경영환경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병철 선대 회장의 ‘비장함’과 대비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자

신감’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이 부회장은 ‘진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에 10년간 133조 원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세대교체를 이룬 젊은 총수들이 이른바 ‘유포리아(euphoria)’ 투자로 경제 지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포리아는 도취감 등을 의미한다. 혁신경제 전문가인 미국의 윌리엄 제인웨이는 한 인터뷰에서 “시장 경제 역사에서 어떤 기술에 대한 유포리아가 없으면

### 신·구 세대 총수 비교

|        | 창업주 및 2세대 총수 | 3·4세대 총수 |
|--------|--------------|----------|
| 경영방침   | 보수           | 개방       |
| 경영 스타일 | 카리스마         | 소통       |
| 투자 스타일 | 사명감·의무감      | 유포리아·편   |
| 투자 전략  | 패스트 팔로어      | 퍼스트 무버   |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총수는 선대 경영인이 맨땅에서 회사를 일궈 피폐했던 나라 경제를 발전시킨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풍요롭게 자랐다. 그러다 보니 ‘열린 소통’ 방식으로 사업 구조조정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선다. 의사결정도 빠르고 과감하다.

해외유학 등으로 일찌감치 글로벌 감각을 갖춘 만큼 인재 영입도 파격적이다. 기존 틀에 박힌 규칙은 던져 버린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기업 전통인 순환주의를 깨고 외부에서 주요 계열사 CEO를 영입하고, 경쟁사의 기술을 사들였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은 수소전지차에 대한 자신감을 꾸준히 보여준다. 임직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사업전개 방향에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총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젊은 재계 총수들은 선대 경영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유연하고 빠른 경영으로 기업의 체질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영록 기자 syr@



유채꽃은 사랑을 싣고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경기 안성시 공도읍 농협안성팜랜드를 찾은 시민들이 노란 유채꽃밭 사이를 거닐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안성팜랜드는 계절마다 특색 있는 테마로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금융위, 보험건전성제도팀 신설... '킵스' 전면 재수정 보험사 '자본확충' 숨통 트인다

금융위원회가 보험과 산하에 ‘건전성제도팀’을 신설한다. 금융감독원이 주도해 온 신지급여력제도(K-ICS·킵스)가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새로운 건전성 감독제도인 킵스 도입을 추진해 왔다.

▶관련기사 9면

6일 금융위는 금융산업국 보험과 산하에 보험건전성제도팀을 신설한다. 은행과 최저연 서기관이 팀장을 맡는다. 이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김민수 행정사무관, 금융위원회 김규리 행정주사보 등이 팀원으로 활동한다.

이는 금융위 주도의 킵스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킵스는 그동안 금융위보다 금감원 주도로 추진됐다. 하지만 금감원이 마련한 킵스 초안을 적용하면 대다수 생명보험사의 RBC비율(보험금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져

업계가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타 업권의 제도도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시각이다.

신설되는 보험건전성제도팀이 은행과 출신 팀장 등 타 업권 출신으로 구성된 이 유도 여기에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회의에서 “은행권(바젤), 증권업권(순자본비율) 등 개선된 자본건전성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업권의 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킵스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킵스 관련 감독규정 개정 작업 업무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킵스에 따라 수십조 원의 자본 확충 부담 여부가 갈리는 보험업계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자본 확충 부담이 큰 중소형사는 기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 중부발전, 태국 나바나콘 발전소 판다

실적부진으로 지분가치 반토막...내주까지 매각 마무리

### 최악 상황 피하러 투자금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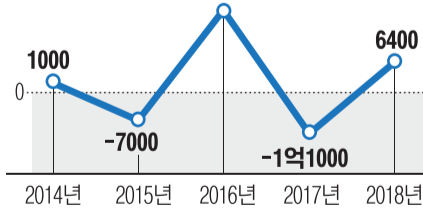
한국중부발전이 실적 부진에 빠진 태국 나바나콘 발전소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중부발전 등 나바나콘 발전소 주주사는 이르면 내주까지 현지 발전사인 라차부리와 전체 지분 매각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2013년 운전을 시작한 나바나콘 발전소는 110MW 규모의 가스열병합발전소로 중부발전은 2012년 166억 원을 투자해 지분 27%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현지 플랜트 기업인 TTCL과 부동산 기업 NLD가 각각 44%, 29%를 갖고 있다.

주주사들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나바나콘 발전소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사들이 매각 협상에서 제시한 가격은 688억 원으로 알려졌다. 중부발전 몫은 198억 원가량이다. 기존 투자금 166억

### 나바나콘 발전소 당기순이익



원에 기술지원비(TSA) 미수금 21억 원 등을 합한 액수다.

중부발전 등이 나바나콘 발전소 매각에 나선 것은 당초 기대와 달리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사업 참여 당시 중부발전은 배당과 TSA 등을 통해 연간 201만 달러(약 23억4000만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홍수로 발전소 준공이 늦어진 데다 운전 후에도 설비 결함 등이 잦아 당기순이익이 매년 3억 원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발전소 운영 경험이 없는 부동산 기업 NLD 측이 경영

을 맡아 비용 절감 등의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약재가 겹치면서 중부발전의 지분 가치도 83억 원으로 당초 투자액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가다간 올해 5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간접비용도 감당치 못할 수 있다는 게 중부발전 측의 우려다. 원리금 상환마저 어려워지면 태국 산업은행 등 대주단이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중부발전에 추가 출자를 요구할 수 있다.

중부발전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라차부리와와의 협상이 결정되면 다른 인수사를 적극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른 주주의 반발을 고려해 중부발전이 독자적으로 지분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 중부발전 측은 “출구전략을 통해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고 해외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 5대 기업 매출 73% 해외서 벌어들였다

환경연 분석...삼성전자 작년 86%

우리나라 10대 기업은 지난해 매출의 66%를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법인세 납부는 작년 우리나라 일자리 예산과 맞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해 매출 100대 기업 중 국내·외 분류 가능한 64개사를 분석한 결과, 해외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55.1%)이었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 5대 기업으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졌다.

지난해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총 매출액은 695조6000억 원으로, 이 중 3분의 2(65.9%)를 해외에서 벌어들였다. 상위 5대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은 72.9%로 더 높았다. 삼성전자는 86.1%로 국내 비중이

##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국내외 매출 비중

| 기업       | 국내 매출 비중 | 해외 매출 비중 |
|----------|----------|----------|
| 삼성전자     | 13.9%    | 86.1%    |
| SK하이닉스   | 2.1%     | 97.9%    |
| LG전자     | 33.1%    | 66.9%    |
| 현대자동차    | 33.0%    | 67.0%    |
| 기타 6대 기업 | 34.1%    | 65.9%    |

김유진 기자 eugene@



# 윤석헌, 소비자 보호 '뚝심'... 이상과 현실 한계 인정

## 금감원장, 취임 1년 성적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1년은 '유연한 호랑이'로 평가받는다. 소신은 지키되 위기 때 유연한 모습도 보였다. 다만 그에 따른 성과는 남아 있는 과제로 꼽힌다.

윤 원장이 8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윤 원장은 취임 전부터 '호랑이'라 불릴 정도로 진보적 소신이 강한 인물로 통했다. 학자 시절 노동이사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등을 앞장서서 주장해 왔다.

취임 1년을 맞은 지금, 윤 원장은 학자로서의 소신과 금감원장의 역할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 취임 초기에는 학자 시절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금융위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유연한 모습도 보였다. 윤 원장은 "학자로 살아왔기에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며 "그런데 금융감독 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상을 실현하

학자로서 지킨 소신

즉시연금·암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단체 만나 해결 의지 종합검사 4년 만에 부활시켜

위기는 유연하게 대처

노동이사제·감독 체계 개편 등 금융위와의 갈등서 한발 양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고자 할 때 늘 현실적인 문제가 따라왔다"며 스스로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다. 협력적 관계자인 금융위에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우선 학자 시절부터 지켜온 소신은 잠시 뒤로 미뤘다. 대표적인 게 노동이사

제다. 윤 원장은 "아직 사회적으로 수용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 천천히 가겠다"며 속도 조절 의사를 밝혔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윤 원장의 핵심 정책이었고 지난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의 갈등까지 불렀던 사안인데 윤 원장이 한발 물러난 것이다. 금

융감독 체계 개편도 시간을 두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의 '소비자 보호' 원칙은 한 치의 흔들림이 없다.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암 보험금 지급 권고는 소비자 보호의 대표적인 예다. 암 보험의 경우 소비자단체와의

만남도 이어가며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4년 만에 부활시킨 종합검사도 이 같은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에 큰 손해를 끼쳤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재조사 또한 마찬가지다.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그에게는 남겨진 숙제가 있다. 지켜온 소신에 따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다. 소신을 성과로 내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자 출신, 민간 출신의 한계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민간 출신 원장으로서 소신을 지켜낸 1년이었지만, 이에 대한 결실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금융위와의 협조와 금융사와의 소통을 통해 취임 2년 차에는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 소신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앞으로 윤 원장의 행보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 신동빈, 경영 복귀 첫 美 출장... '글로벌 롯데' 가속

### 에탄크래커 공장 준공식 참석 중·동남아 투자 사업도 재개

신동빈(사진)롯데그룹회장의 '글로벌 롯데'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내수 불황과 각종 규제를 피해 해외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6일 롯데에 따르면 신 회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리는 롯데케미칼 에탄크래커 공장 준공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신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오른 것은 석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6월 착공한 지 약 3년 만이다

음 달 9일 본격 상업생산을 시작하는 롯데케미칼 루이지애나 공장은 국내 단일 기업 투자액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큰 총 31억 달러(약 3조6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롯데가 지분의 90%를 투자한 '메가 프로젝트'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롯데케미칼은 국내외를 합쳐 450만 톤의 에틸렌 생산량을 보유하게 돼 국내 화학 기업 1위가 된다.

롯데는 이번 에탄크래커 공장 준공을 통해 미국 엑시셀사(社)와 함께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저렴한 셰일가스를 원료로

연산 100만 톤 규모의 에틸렌과 70만 톤 규모의 에틸렌글리콜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아시아 석유화학사 최초로 북미지역의 셰일가스 에탄크래커 사업 진출이다.

롯데 관계자는 "저가의 가스 원료 사용 비중을 높이고 나프타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원료 및 생산기지와 판매지역의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한 걸음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이지애나 공장 가동을 통해 롯데케미칼은 연 매출액 1조 원, 영업이익 2000억 원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준공식은 착공 시기에 갑자기 들이닥친 검찰 수사 등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는 것으로 신 회장과 롯데그룹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

의 이번 준공식 참석은 그간 구속수감에 따른 경영 공백 이후 글로벌 현장 경영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라며 "신 회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롯데' 구축에도 한층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은 물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사업이 중단됐던 중국에서도 신 회장의 글로벌 사업 투자 가속 재개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베트남을 먼저 찾아 호찌민시 5만여㎡ 규모 부지에 에코 스마트시티 복합단지 프로젝트를 부지를 둘러보고 응우옌 쑤언 폭 베트남 총리를 만나 투자확대와 협력방안을 논의했

다. 베트남 하노이시에도 띠이훅 신도시 7만3000여㎡ 상업지구에 복합쇼핑몰 '롯데몰 하노이'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바 반텐주에서 열린 대규모 유휴단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유휴단지가 완공되면 롯데 화학부문의 동남아시아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중단됐던 선양 롯데타운 2기 공사가 2년 6개월여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롯데는 2008년부터 총 3조 원을 투입해 선양의 16만㎡(약 5만 평) 부지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호텔, 영화관, 놀이시설, 아파트 등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014년 백화점과 영화관 등만 우선 개점하고 나머지 공사 중에 사드 사태로 중단됐던 이 사업은 중국 당국이 지난달 시공을 허가함에 따라 롯데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백미선 기자 only@

# 교통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일상 속 교통 안전을 책임집니다. 50 30

- 도시부 속도하향 5030확대
- 사업용 자동차 안전 관리
- 실시간 어린이 안심통학버스 서비스 추진
- 생애주기를 고려한 철도 안전관리

### 자동차 안전을 강화합니다. 자동차 리콜

-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 전담
- 자동차 안전도 평가
- 자동차 결함 정보 수집·분석

### 미래교통 혁신을 선도합니다. K-CITY

-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 베드 운영
- 드론 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
- 첨단자동차 검사기술 연구

### 사회적 책임을 실천합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
- 운수종사자 양성 등 좋은 일자리 창출





# 선대 총수보다 더 과감한 투자... '적과의 동침'도 OK!

## 경제지도 바꾸는 '젊은 총수'

“경쟁하되 함께 간다” 유연한 사고  
 이재용 부회장, 애플과 전략적 제휴

삼성-현대차, 전기차 동맹 움직임  
 GS칼텍스-LG전자 '미래형 주유소'

“과감하되(Investment) 신중하며(Prudence), 경쟁하되(Competition) 함께 간다(Companion).”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치고 나갈 젊은 오너 3·4세대의 공통된 경영철학이다. 이들은 선대 총수들보다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물론, 만년 경쟁자였던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도 서슴지 않고 밀어붙인다.

만땅에서 기업을 일군 창업주와 2세들에 비해 3·4세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했다. 선대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들 대부분이 외국에서 공부하며 해외의 선진 사례를 보다 많이 접하는 등 글로벌 감각을 키운 해외파라는 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게이오기주쿠대학교(석사)와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박사과정 수료)에서 수학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은 샌프란시스코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로체스터공과대학을 졸업했다. 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았고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이 스탠퍼드대학교(석사)를 다니는 등 3·4세대 재계 총수 및 후계자들은 대부분 다년간 유학 경험을 통해 온 몸 가득히 자유로움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갖췄다.

◇통 큰 결단과 발 빠른 대응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협력이 좋지 않음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자신감·결단력이 있다. 조부 고(故) 이병철 회장의 “싸야 할 곳과 안 싸도 좋을 곳을 분

## 주요 그룹 투자 및 협업 사례



협업 - 삼성전자·기아차, 주행차 기술 제휴 마케팅 - 삼성전자·애플, 스마트폰 전략적 제휴 - GS칼텍스·LG전자, 전기차 '미래형 주유소' 설립

간하라. 판단이 흐리면 낭패가 따른다”는 조언이 그에게 영향을 미친 것일까. 최근 반도체 초호황 국면이 꺾인 상황에서도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에 133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지난해 8월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180조 원(국내 130조 원)을 신규 투자한다고 발표한 지 1년도 채 안 됐다.

새내기 총수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신기술 확보에 애착을 드러내며 과감한 투자도 망설이지 않는다. LG화학 투자가 대표적 사례다. 올 초 중국 배터리 공장에 1조2000억 원의 증설 투자를 결정했으며 미국 듀폰으로부터 솔루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기술을 인수하는 등 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기초소재부문 고부가 사업, 전기 부문의 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6조2000억 원의 시설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시설 투자금 대비 34.8% 급증한 수치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의 시대가 도래하며 기존에는 조심스러웠던 투자가 '통 큰 미래 투자'로 변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향후 5년간 현대차의 연구·개발(R&D)과 미래 기술 분야에 총 45조3000억 원을 투

자로 했다. 미래차 관련 핵심기술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이는 연평균 9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과거 5년 연평균 투자금(5조7000억 원) 대비 58% 이상 늘어난 수치다. 현대차가 구체적인 수익성 목표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원태 회장이 취임 후 내린 사실상 첫 경영조치는 1등석(퍼스트클래스)의 과감한 축소였다. 대한항공은 6월부터 국제선

27개 노선에서 추가로 1등석(퍼스트클래스)을 없애기로 했다. 국제선 111개 구간 중 약 31%인 35개 구간에서만 1등석이 유지된다.

◇만년 경쟁자가 미래 동반자로 = 젊은 총수들은 경쟁사 간 동맹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의 경우, 이재용·정의선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협업 움직임이 보인다. 최근에는 자동차 시장에서 과거 앙금이 있던 현대차와

삼성 간 전기차용 배터리 등 협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와 기아차가 자율주행차 기술 제휴 마케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올 초 스마트폰 시장에서 최대 라이벌인 애플과도 전략적 제휴를 결정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수년간에 걸친 '스마트폰 특허 전쟁'으로 두 회사의 관계는 오랜 기간 냉랭했다.

올해부터 GS칼텍스를 이끌게 된 GS그룹 오너 4세 허세홍 사장은 취임 이후 기존 사업을 강화하면서도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히 협업하고 있다. 지난 1월 LG전자와 손잡고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주유소'를 만들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기존 패러다임이 뒤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총수들은 기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정확하면서도 시의적절한 판단력과 함께 때로는 경쟁자도 보듬으며 함께 갈 수 있는 포용력도 갖춰야 하는 등 팔방미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권태성 기자 tskwon@변효선 기자 hsbun@

## “갤럭시 쓰면 얘기해줄 텐데” 농담도

### 의전문화 바꾸는 재계 3세

출장때 수행원 없이 홀로 출국

구광모 “넥타이 풀고 회의해요”

정의선, 근무복·출퇴근 자유화

2세 재계 총수들은 운신의 폭이 좁았다. 과감한 경영전략과 발 빠른 판단, 글로벌 영토 확장 등 걸출한 외연적 변화를 주도했음에도 '존재의 당위성'은 늘 아버지의 명성과 비교됐다.

보수적이고 정형화된 재계의 기풍 속에서 이들의 행보는 조심스러웠다. '창업주의 명성에 자칫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도 서려있었다. 결국 이들은 사내·외에서 범접하기 힘든 권위를 드러내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3세 경영은 선대들과 궤를 달리한다. 때로는 현장에서 실무를 먼저 배웠고 일찌감치 철저한 경영수업을 받았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해외 경험을 쌓기도 했다. 이들이 본격적인 경영 일선에 나서면서 재계는 과감한 변화를 맞고 있다.

가장 먼저 의전 방식이 달라졌다. 격식을 벗어난 3세대들은 '총수'라는 선입견을 성큼 밀어내고 직원에게 그리고 일반인에게 다가서는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장례식 때 단 한 명의 수

행원도 없이 혼자 장례식장을 찾았다. 지난해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였다. 해외출장 때도 본인이 서류 가방을 들고 홀로 출입국할 때가 많다. 대인론 관계도 상당히 개방적이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취재진 중 한 명이 아이폰을 들고 있는 걸 발견하고선 “갤럭시를 쓰면 더 많이 이야기해 줄 텐데...”라며 농담 섞인 티바성 멘트를 해 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역시 과도한 의전을 매우 싫어한다. 3세 경영인 가운데 비교적 젊은 구 회장은 LG의 반듯한 조직문화에 실용주의를 입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회장이 아닌 대표로 불러 달라”며 파격을 유도했고, 주요 회의 때 넥타이를 먼저 풀고 성큼 임직원 앞으로 다가서고 있다.

사실상 원톱 체제를 다지고 있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도 과감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경직된 조직 문화에 새바람을 불어넣으며 근무복 자율화, 출퇴근 유연제 등을 추진했다. 아직 정부 주관의 행사 또는 공식 일정 때에는 그룹 차원에서 의전을 하지만 정몽구 회장 의전과 비교하면 꽤 단출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기풍이 워낙 보수적인 탓에 외부에서는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도 “내부에서는 의전 간소화를 꽤 파격적인 변화로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KB 금융그룹** | 국민 생활 금융파트너

가족 모두 건강해야 하니까

## 희망 가득 드릴게요!

우리는 많은 날을 살아갑니다  
 아픈 날도, 아프지 않은 날도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가족 모두를 든든하게 케어해주는  
 건강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생활 속 다양한 보장과 케어를 하나로!  
**특별! KB The드림365건강보험!**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2125호 (2019.01.07)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B 손해보험**



# 빛 못 갚는 자영업자 늘어... 지방銀, 연체율 경고음

경기침체·소득 양극화 맞물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확산 우려  
카드론·현금서비스 연체도 증가  
작년 보험 해지 지급액 27兆

| 은행   | 2019년 1분기 | 전년대비 상승폭 |
|------|-----------|----------|
| 국민은행 | 0.24%     | 0.06%p   |
| 하나은행 | 0.41%     | 0.08%p   |
| 신한은행 | 0.23%     | -0.01%p  |
| 우리은행 | 0.21%     | -0.02%p  |
| 농협은행 | 0.41%     | 0.04%p   |

은행의 대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경제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가 급속도로 확산될 조짐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요 시중은행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연체율이 0.24%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전분기 대비 0.04%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전분기 대비 0.10%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0.08%포인트 오른 0.41%를 기록했다. 농협은행은 0.41%로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0.04%포인트가 올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0.23%, 0.21%로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자동차·조선·해운업경기침체·대출부실 확산 = 연체율은 매각과 상각 등은 행들의 정기적인 연체채권 처리로 계절성을 띤다. 주로 연말에 낮아지다가 연초에 다시 높아진다. 이번 시중은행의 연체율 상승을 두고 계절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는 어렵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소폭 반등한 것도 사실이다.  
숫자만 보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별로 따져보면 해석은 다양해진다. 특히 하나금융은 1분기에 부실채권 매각을 하지 않았고, 거액 대출자의 사망도 영향을 미쳤다. 이 경우라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 영향에 따라 연체율 계산에 들어가는 숫자만 커진 것이다.

다만 최근 자동차·조선·해운업 등의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경제가 취약한 실정이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계·기업대출의 연체율은 시중은행에선 1%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지방은행은 연체율이 이미 1%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반등이 실물경기 지표의 악화나 소득 양극화 등과 맞물리면 자영업자, 저신용·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카드 연체율 오르고 보험 해지 늘어 = 카드업계도 상황이 비슷하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KB국민카드 등 주요 7개 카드사의 올해 1분기 연체율(대환대출 포함)이 전부 작년 1분기보다 상승했다.

카드사 연체율 상승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못 갚는 이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을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못해 강제 해지되는 이들이 많아졌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보험 633만2212건이 해지환급(자발적)되거나 효력상실 환급(비자발적)됐다.

생명보험사는 이렇게 해지된 보험으로 고객에게 27조5000억 원을 돌려줬는데, 이는 생보사가 작년 한 해 보험금, 환급금, 배당 등으로 고객에게 준 전체 금액(58조9000억 원)의 46.8%에 달했다. 생보사의 전체 지급금액 대비 해지·효력상실로 인한 지급액 비중은 2016년 45.6%, 2017년 45.3%, 작년 46.8%로 상승 추세다.

손해보험도 장기계약 환급금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2017년에 전체 장기 원수 보험료 49조 원 중 21.7%(10조7000억 원)가 장기계약 환급금으로 나갔다.  
곽진산 기자 jinsan@

## 소상공인 3명 중 1명 “휴·폐업 심각하게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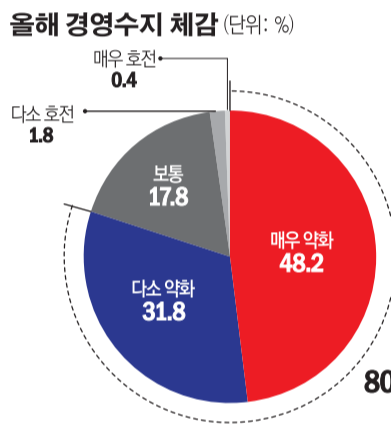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500개사 경영실태조사

경영수지 악화됐지만 생계 부담에 폐업 못해... 인력 감축 일주일에 6일·하루 11시간 영업... ‘워라밸’ 꿈도 못꾼다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최근 1년 동안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도 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 업종의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33.6%의 업체가 최근 1년 내 사업 전환이나 휴·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한 업체들의 폐업 후 계획은 △계획 없음(36.3%) △근로자로 취업(20.8%) △은퇴(20.2%) △타업종 재창업(17.3%) 등이었다. 그런데도 △매수자 없음(63.1%)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58.9%) △권리금 회수 어려움(41.1%) 등의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폐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상황에 관해서는 80.0%에 달하는 업체가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의 경영수지(영업이익)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업체도 77.4%에 달했다.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은(복수응답)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83.5%) △제품, 재료비 원가 상승(27.8%) △동일업종 소상공인 간 경쟁 심화(27.3%) △인건비 증가(22.3%) 등으로 나타났다. 전망과 관련해 2분기 이후의 경영상황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59.6%)이 과반으로 조사됐다. 경영이 호전이 이루어지는 시점도 호전 불가(53.4%), 2022년 이후



영업 30.8%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6일 이상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영업하는 비율도 40.4%로 높게 나타났다. 일과 생활 중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는지는 질문에는 72.4%의 응답자가 “일에 더 치우쳐 있다”고 응답해 소상공인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관련 법체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기중앙회가 앞장서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2019 부산광역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공고

2019 부산광역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공고합니다.

**대회 개요**

- 대회기간 : 2019. 10. 4(금) ~ 10. 11(금) [8일간]
- 개최지 : 부산광역시
- 경기장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부산공업고등학교,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경남공업고등학교, (주)디에스피, BEXCO 제2전시장
- 경기직종 : 폴리메카닉스 등 50개 직종

**참가원서 접수안내**

가. 접수기간 : 2019. 5. 7(화) ~ 5. 13(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참가원서 : 인터넷 접수 (<http://meister.hrdkorea.or.kr> 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관할 시·도기능경기위원회로 우편 또는 내방접수
  - (1) 개인자격 참가자 : 주민등록초본 1부 (6개월 이상 거주사실 확인)
  - (2) 학교, 기업체 등 소속이 있는 참가자
    - ① 학생(직업전문학교 포함), 군인, 공무원 등 : 추천서 1부
    - ② 근로자 : 추천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3개월 이상 근무사실 확인) 각 1부.
    - ③ 학생 : 추천서 및 수경로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 수강사실 확인) 각 1부.
- ※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선수로서 자격이 무효화됨을 알려드립니다.
-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시·도기능경기위원회에 내방 및 우편접수

다. 참가자격

- 2019년 지방기능경기대회 1위, 2위, 3위 입상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018년 입상자에 한함)
- ※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을 인정받은 대회의 직종별 최고득점자 1명(1팀)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지방대회 당시 참여한 시·도기능경기위원회를 소속 시·도로 접수하여야 함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직종과 동일한 직종으로 참여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참가원서에 소속기관명을 입력하여야 하며, 추천서 및 추가서류는 해당 소속기관의 주소를 관할하는 경기위원회를 제출하여야 함
- 팀별 참가 직종(모바일로봇닉스, 메카트로닉스, 게임개발)은 지방대회 입상 시의 팀과 동일한 팀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팀원 중 1명이라도 불참 시 해당 팀은 경기 참여 불가함

**추천서 및 추가서류 접수장소**

| 시·도 | 접수장소                   | 연락처          | 시·도 | 접수장소                     | 연락처          |
|-----|------------------------|--------------|-----|--------------------------|--------------|
| 서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로 279     | 02-2137-0418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        | 033-249-8504 |
| 부산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330-1904 | 충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 043-279-9011 |
| 대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580-2306 | 충남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고길 27       | 041-620-7621 |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820-8611 | 전북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210-9204 |
| 광주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970-1736 | 전남  |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 061-720-8552 |
| 대전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580-9109 | 경북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 054-840-3011 |
| 울산  |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7       | 052-220-3237 | 경남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212-7215 |
| 세종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580-9106 | 제주  | 제주 제주시 북지로 19            | 064-729-0727 |
| 경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249-1203 |     |                          |              |

**시 상**

가. 시상내역

| 구분  | 입상선수                 | 우수시·도      | 우수선수 배출기관  |
|-----|----------------------|------------|--|
| 1위  | 금메달, 상장 및 상금 1,200만원 | 대통령배 및 우승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탑 및 상금 300만원</li> <li>▶ 은탑 및 상금 200만원</li> <li>▶ 동탑 및 상금 100만원</li> <li>※ 소정의 포상기준에 의거 선정</li> </ul> |
| 2위  | 은메달, 상장 및 상금 800만원   | 국무총리배      |  |
| 3위  | 동메달, 상장 및 상금 400만원   | 고용노동부장관배   |  |
| 우수상 | 상장 및 상금 100/70/50만원  | 대회장배       |  |
| 장려상 | 상장                   | -          |  |
| 특별상 | 상장                   | 특별상 트로피    |  |

※ 입상자(금,은,동)는 국가기술자격시험규칙에 의거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또는 기능사 필·실기 시험 면제(입상일로부터 2년간 유효)

나. 시상 관련 유의사항

- 직종별로 금메달 1명, 은메달 2명, 동메달 3명을 선정할 예정이나 직종별 참가선수 수에 따라 입상자선정 기준을 차등 적용할 예정임
-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직종에 한하여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해당 직종의 상위 득점자 2명은 2021년 제46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수 선별을 위한 평가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참고사항**

- 시설목록에 따라 경기에 필요한 일부 장비, 공구, 재료, 소프트웨어 등은 선수가 지참하여야 할 수 있음
- 일부 직종은 시설 및 장비 여건 등에 따라 미시행될 수 있음
- 대회참가에 따른 이동과 대회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선수 본인의 책임임
- 자세한 사항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http://meister.hrdkorea.or.kr> 및 한국위원회 032-509-1842,1846,1847,1849)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



# 北 ‘저강도 도발’… 美, 강경 대응보다 대화에 방점

폼페이오 “韓·美에 위협 안돼  
비핵화 대화 계속되길 원해”  
北·美 교착국면 장기화 우려  
비건 美 대표 9일 방한 주목

반했는지에 대해 그는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에 한 행동이 방해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며 “대화를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북 미사일 발사 첫날인 4월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말을 아끼면서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 미사일 발사 당일 국방부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 수발’로 정정한 뒤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오락가락해 ‘북 도발 수위 낮추기 논란’을 자초했다. 이번 발사체 발사로 남북 대화채널 단절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도발로 한국과 미국에 비핵화 해법에 대한 숙제를 안겼지만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여서 장기 교착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당분간 저강도 도발을 계속하며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돼 조기 국면전환은 어려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9~10일 한미 워킹그룹 협의차 방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북한이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으로 미국에 대한 저강도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즉각적인 비난을 자제할 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남북 관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 ABC뉴스, CBS뉴스의 시사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4일 북한이 쏜 것은 ‘단거리 발사체’라며 비핵화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단거리로 여러 발 발사됐다”며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도 국제적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며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밝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미사일 발사가 모라토리엄(동결)을 위



콜롬비아를 공식 방문 중인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5일(현지시간) 보고타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수행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콜롬비아 공식방문 이낙연 총리

### “경제협력 방향, 점점 꽤 있을 것”

#### 수행기업인 초청 만찬간담회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현지시간) “콜롬비아를 추진하는 경제 방향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점점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롬비아를 공식방문한 이 총리는 이날 수도 보고타 시내 한 호텔에서 연 수행기업인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콜롬비아에서) 할 일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콜롬비아에서 몇 가지 사업이 우리 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그 예로 LG CNS의 보고타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과 현대중공업의 친환경 엔진 발전소 사업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협력 사업이) 활발한 것 같지만, 두 나라의 관계나 콜롬비아의 잠재력으로 볼 때 많이 활발한

편은 아니다”라고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콜롬비아는 내전이 종식되고 평화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외자유치, 인프라 확충 등에 의욕을 보인다”며 “내일 이만 두께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데 기업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콜롬비아에 와서 물건을 팔지만 말고 같이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기업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콜롬비아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께서 놀라운 진취력을 가지고 다소 리스크가 있거나 수치 전방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도전하는 그 정신이야말로 기업이 정신”이라며 “여러분이 더 노력해 주시고 정부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 ‘패스트트랙’ 대치에 4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

황교안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에 의분” 전국 순회투쟁  
민주당 “추경안 처리 시급… 국민, 국회 정상화 갈망”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4월 임시국회는 7일 회기가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단 삭발에 장외 투쟁에 나선 상태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7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황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방부에서는 4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다 다시, 북한이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또다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두둔하듯, 북한을 편들듯, 김정은을 지키듯,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 의식과 거짓말에 우리는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장 국민 안전 확보 및 민

생 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 재정 예산안과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강원 산불·지진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경제 하방 리스크를 고려한 민생 추경도 시급하다”며 “국민과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대치 정국이 이번 주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8일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이뤄지는 만큼 새 원내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현정 기자 jhj@

살 때 팔 때 투자 타이밍이 더 유익하다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인공지능 티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티레이더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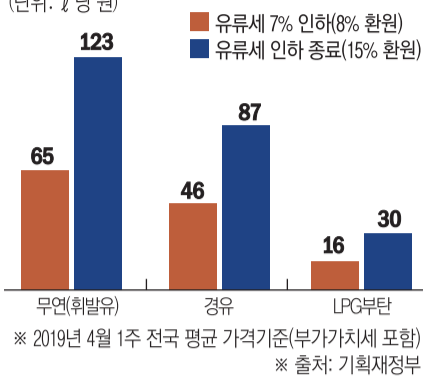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6%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출금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예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편안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9-62호(2019.02.28)



# 오늘부터 휘발유 가격 ℓ 당 65원 오른다

정부, 유류세를 단계적 환원  
인하 폭 15%→7% 축소  
경유 46원, LPG 16원 인상  
가격 담합 등 모니터링 강화

유류세 인하를 축소 시 유가 인상 폭 (단위: ℓ 당 원)



7일부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65원 오른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은 각각 46원, 16원 인상된다. 이를 계기로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2일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방안에 따라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 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유류 가격은 휘발유가 4.6%(65원), 경유 3.5%(46원), LPG 부탄 2.1%(16원) 오른다. 9월부터 유류세율 인하 조치가 전면

중요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당초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6개월간 시행하기로 했으나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인하 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차 환원일인 7일을 전후해 가

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과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 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받고 있으며,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 중이다. 그 일환으로 정유업체와 관련 협회,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관련 기관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에 지하철 수준 버스 달린다

국토부, S-BRT 도입 추진  
신호체계·정류장 등 구축  
정시성 강화 이용편의 개선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에 지하철처럼 정시성이 강화된 슈퍼 간선급행버스체계(Super-BRT)가 도입된다. S-BRT란 전용 차량,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 등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BRT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저비용·고효율 교통수단인 BRT(BRT·Bus Rapid Transit) 고급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BRT는 경전철 사업비의 6.5%에 불과하지만 수용용량은 85%에 달하는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 수단이다. 그간 서울, 부산, 경기 등 여러 지자체에서 BRT를 도입·운영 중이나 대부분 중앙버스전용차로로 구축·운

영됨에 따라 도입 당시 기대했던 속도나 정시성 등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광위는 지난달 17일 BRT 운영체계 개선 및 Super-BRT 표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 S-BRT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 중인 세종 BRT와 청라·강서 BRT를 대상으로 운영 체계상의 문제점, 서비스 수준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신호체계와 정류장, 전용 차량, 환승시설 등 설치기준 적정성과 이용자 편의 등의 관점에서 장·단기 개선과제를 추진한다.

또 S-BRT 표준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시범사업 2곳을 선정·추진하며 특히 3기 신도시에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지구 10km,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지구 8km가 대상으로 검토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유류세율 인하 폭 축소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돼 온 유류세율 인하 폭 15%가 7일부터 7%로 축소 조정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조현병 공포’ 키운 정부

현장에서

정신질환자에 ‘관리 대상’ 낙인  
치료 꺼려 음지로 숨을 우려 커  
통제 아니라 치료 유도해야

정부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대해 국가책임제 수준의 관리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정신질환자-잠재범죄자’라는 인식을 만들어 정신질환자들을 숨게 만들 소지가 있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136%로 전체 범죄율 3.93%에 비해 크게 낮지만(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 돌발행동 등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크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돕겠다는 게 요지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강도부터 다르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자·타해 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배치한다. 또 경찰·소방과 협조체계를 구

축한다.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 발생이나 응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별 정신응급대응협의체도 설치한다.

‘관리’와 ‘대응’이란 단어부터 부정적이다. 정부가 나서서 정신질환과 범죄 간 개연성을 인정한 꼴이다. ‘실제 범죄율은 낮지만 일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부각돼 불안이 확대됐다’는 지난해 입장에서 180도 달라졌다. 정부가 나서서 정신질환자에 ‘관리 대상’이란 낙인을 찍었다.

실제 발표된 대책의 방향성이 이렇다면 정신질환자들은 지금보다 더 음지로 숨어들 우려가 크다.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병원 진료와 치료를 꺼리게 되면, 돌발행동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내놓은 대책이 국민 불안을 더 키우는 셈이다. 복지부는 “치료재활 강화, 등록 인센티브 등 혜택도 같이 간다”고 하지만, 그 혜택이 사회적 낙인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할 만큼 크지 않다.

정신질환자의 돌발행동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려면 무엇보다 정신질환자들이 스스로 치료받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당장 시급한 건 관리와 통제가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제거하는 일이다. 감기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을 위협하기도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신질환을 감기처럼 여기는 것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추락하는 수출... ‘2년 연속 6000억 달러’ 멀어지나

4월까지 누적액 1816억 6.8%↓... 반도체 등 주력품목 부진

우리 수출이 작년 1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가면서 정부의 올해 수출액 목표인 6000억 달러 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수출액은 1816억 달러(잠정)로 전년 같은 기간(1949억 달러)에 비해 6.8% 줄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반도체 경기 슈퍼호황과 국제유가 상승, 세계 교역 호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장구하며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올해는 반도체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세계 교역 부진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런 악재의 조기 해소가 불투명한 데다 우리 수출의 75.9%(4월 기준)를

차지하는 13대 주력품목 대부분이 역성장 하고 있어 비상이 걸린 상태다.

1~4월 13대 주력품목 수출액은 1400억 달러로 전년보다 9.1% 줄었다. 자동차(5.1%)와 일반기계(0.6%), 자동차 부품(2.2%)을 제외한 선박(-3.7%), 무선통신기기(-20.6%), 석유화학(-9.0%), 철강(-3.3%), 반도체(-19.6%), 석유제품(-4.2%), 디스플레이(-11.0%), 섬유(-6.5%), 가전(-4.9%), 컴퓨터(-34.2%) 등 10개 품목이 감소했다.

특히 작년 전체 수출(6049억 달러)의 21.2%(1282억 달러)를 차지한 반도체 수출이 D램 가격 하락 및 수요 부진으로 5개월 연속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 6000억 달러 돌파를 견인한 것도 반

도체였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7개월(5~11월)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우리 전체 수출액도 7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겼다. 올해 월별 반도체 수출액은 70억~90억 달러 정도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요가 회복돼 반도체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선임연구원은 “하반기에 미국 등 글로벌 IT 경기 회복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겠지만 큰 폭의 단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올해 반도체 수출이 작년 실적을 뛰어넘기는 어려워 현재로서는 수출액 6000억 달러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미혼남성 5명 중 1명 “부모가 주택비용 지원 기대”

미혼남성 5명 중 1명은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주택비용 지원이나 상속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청년층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시 부모로부터 주

택비용 및 상속을 기대한다는 비율은 남성이 23.1%, 여성은 17.7%로 나타났다. 이 미 지원이나 상속을 받았다는 응답은 남성이 3.9%, 여성은 1.7%였다.

부모의 지원과 상속에 대한 기대는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부

모의 경제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남성은 49.3%, 여성은 43.4%가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부모의 경제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남성은 7.9%, 여성은 2.2%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만 25~39세 미혼남녀 30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동일스위트 과징금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일명 후려치기)하는 등 하청업체에 갑질 행위를 한 중견건설사인 동일스위트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일스위트에 대금 지급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014

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등 세 차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계약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동일스위트는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다른 협력사인 A사와 협상해 입찰 최저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주유소에 대한 관점을 뒤집으면?  
**생활의 스마트 네트워크, SK주유소**



# 생각한다 i 그 극은 남



자동차 소재에 대한 상식을 뒤집으면?  
**미래자동차 산업을 바꿀 초경량 소재**





# 트럼프, G2 종전에 찬물 中 상대로 '추가관세'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에 돌연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최종 타결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대중 관세를 기존보다 더 올릴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중국도 예정된 무역협상 취소를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매긴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10일부터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 관세를 매기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은 500억 달러어치의 하이테크 제품에 25%, 2000억 달러어치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미국에 지불해왔다"며 "금요일(10일)에는 10%가 25%로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중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3250억 달러어치의 추가 상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곧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 중국이 재협상하

"10일부터 10%→25% 올리겠다" 협상타결 위한 단순 위협 가능성 중 "워싱턴 협상취소 검토" 맹공

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졌다는 기대가 한껏 부풀 상황에서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무역대표단 역시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에 놀랐으며 중국이 8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고위급 무역협상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 역시 미국의 압박 전략에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이 10일 실제로 관세를 인상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예고 없이 갑자기 관세를 올리는 게 관행에 어긋나는 데다, 관세 추가 인상 정책이 미국 내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강경 발언은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한 단순한 위협에 불과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바운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는 단순한 위협일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미중이 이번 주 후반에 협상 타결을 발표한다면, 이번 발언은 트럼프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매우 강경하게 행동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내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쯤에서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무역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라고 풀이했다.

이슬기 기자 seoulkee@

## 트럼프 변덕에 금융시장 요동 중국 상하이 지수 5.58% 폭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나서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일까지 타결될 것이었던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오후 9시 기준 다우존스 선물은 500포인트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S&P500과 나스닥100은 60포인트와 187포인트의 하락세를 각각 기록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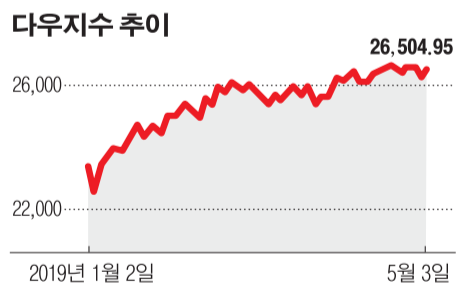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빠지고 있다. 미국 원유(WTI) 선물은 2.83% 하락해 배럴당 60.19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브렌트유 역시 2.48% 떨어져 배럴당 69.0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엔화 가치가 달러당 110.58엔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며 3월 2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6일 오후 2시 20분 현재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5% 이상 빠졌고, 홍콩 항셱지수는 3.10%, 싱가포르 ST지수는 3.36% 각각 떨어졌다. 한국과 일본은 휴장이다.

이날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 관세 인상을 표명하면서 미중 무역 마찰 격화 우려가 재부상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갑작



스러운 기류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중 무역협상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고, 제품 파워 미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도 "우려는 남아 있지만 위협은 약간 누그러진 것 같다"는 등 낙관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미국 다우지수는 올 들어 14%,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3% 각각 상승했다. 이는 <미중 무역 마찰 완화 기대 >중국 경기 회복 기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등이 뒷받침이 됐다. 그러나 미중 무역 마찰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가 다시 후퇴하면서 세계 시장에도 다시 불황이 될 수 있다.

뉴브리츠증권의 도널드 셀킨 수석 시장 전략가는 "관세 인상은 미국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며, 미국 소비자에게 있어서 수입재 가격을 올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아마존 주식 산 버핏 "싸길래 산 것뿐"

"가치 투자의 사망" 평가에 "저가매수 원칙 지켰다" 반박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가 4일(현지시간) 미국 중서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렸다. 버크셔의 주주 약 4만 명이 세계 각지에서 참석해 버핏의 투자 철학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 주총의 최대 화두는 버핏이 미국 온라인 쇼핑물 아마존닷컴 주식을 처음으로 매입한 것이었다. 버핏은 주총이 열리기 직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버크셔 자금을 운용하는 사무실의 동료 중 누군가가 아마존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주총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버핏은 "아마존 주식을 산 건 '쌀 때 사자'는 투자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아마존의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71배로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기술주의 주도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는 죽었다"며 "버핏도 드디어 투자 철

학이 변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버핏은 "버크셔의 투자 철학은 변함없다"며 "아마존 주식 매입은 사내 펀드 매니저가 결정하지만 가치 투자의 원칙에 완벽하게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로 눈앞의 주가만 보고 저렴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버핏은 "아마존은 소매업체로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버크셔가 투자한 미국 식품 대기업 크래프트하인즈는 코스트코와 월마트, 아마존 산하 홀푸드마켓의 자체 상표(PB) 상품에 밀려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실적도 악화하고 있다.

버핏은 크래프트하인즈 때문에 큰 손해를 입으면서 유통 및 제조업체의 역학관계 변화를 목도, 아마존에 호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의 주가는 올해 들어 이달 2일까지 27% 상승했다. 버핏은 이전부터 "아마존의 팬"이라며 "아마존 주식



연례 주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AP연합뉴스

을 사지 않으면 바보"라고 할 만큼 아마존에 호감을 표시해왔다.

한편 버핏은 수중에 있는 1000억 달러의 용도를 묻는 질문에 "회사 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적 가치를 밑돌면 자금을 기꺼이 자사주 매입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수중에 있는 자금 규모가 자사주 매입 정책을 바꾸는 건 아니다"라며 과도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에 선을 그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비상착륙 러시아 여객기 화재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 5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아에로플로트 항공사 소속 수호이슈퍼제트100 여객기가 화염에 휩싸여 있다. 승객과 승무원 78명을 태운 이 여객기는 이날 이륙 28분 만에 회항을 결정, 비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기체 후방에 화재가 발생해 41명이 숨졌다. 당국은 이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모스크바/AFP연합뉴스

## 손정의, 비전펀드 상장 검토

자금 조기고갈에 서둘러 추가자금 확보

투자업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세계 최대 하이테크 투자펀드인 '비전펀드'의 기업공개(IPO)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프트뱅크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올가을에 비전펀드의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1000억 달러 규모의 비전펀드와 맞먹는 제2의 비전펀드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비전펀드 출범 이후 공격적 투자를 계속하면서 비전펀드 자금이 조달 2년여 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비전펀드의 기업공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비전펀드는 당초 유치한 자금으로 4년에 걸쳐 IT 벤처 등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WSJ에 따르면 비전펀드가 앞으로

1년 6개월 안에 직원을 현원 400명에서 800명으로 늘리는 등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하는 것도 추가 자금 확보 필요성을 극대화했다.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만약 기업공개가 추진될 경우 전통적 기업공개 방식이 아니라 증권거래소에 곧바로 상장하는 직상장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매체는 이 같은 방식은 전례 없는 것으로, 만약 성공한다면 여러 규제 때문에 벤처캐피탈에 투자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식통은 또 제2 비전펀드의 목표는 '리틀 버크셔해서웨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2의 비전펀드 역시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니라 아직 수익을 내지 않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공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격적 투자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다만 소프트뱅크 측이 계획하는 대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자금 유치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덩치가 큰 편에 속하는 사모펀드도 약 200억 달러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1000억 달러라는 목표치가 업계에서 받아들이기 매우 큰 금액이기 때문이다.

비전펀드가 투자한 우버와 위워크 등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앞두고 있는 점도 자금 조달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이슬기 기자 seoulkee@



# “킵스 시행 땀 줄폐업... 기준 완화해도 자본확충 필요”

## 금융위, '킵스' 전면 재검토

금융위원회가 보험과 산하에 '건전성 제도'를 신설한다. 금융감독원이 주도해온 신지급여력제도(K-ICS·킵스)를 사실상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도다. 킵스에 따라 수십조 원의 자본확충 부담 여부가 갈리는 보험사들은 기준이 완화될지 내심 기대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7일 금융산업국 보험과 산하에 보험건전성제도를 신설한다. 은행과 최저연 서기관이 팀장을 맡는다. 이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김민수 행정사무관 등 타 업권 출신으로만 구성됐다. 이는 킵스 도입 방안을 금융위 주도로 재검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킵스는 금융위보다는 금감원 주도로 추진됐다. 금감원이 지난해 킵스 1차 초안으로 계량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사를 제외한 대부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밑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보험사들의 평균 지급여력비율

## '킵스' 초안 계량영향평가 결과 대부분 RBC 비율 100% 밑돌아

## 업계,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난항 저금리에 RBC 비율 하락도 악재 "대다수 업체 자본확충 여력 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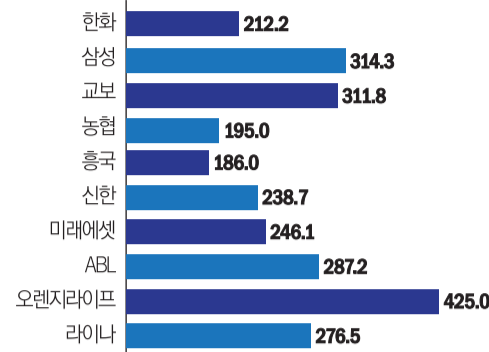
261.2%와 비교하면 절반 밑으로 떨어진 수치다. 이 때문에 업계가 수용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타 업권의 제도도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시각이다. 신설되는 보험건전성제도가 은행과 출신 팀장 등 타 업권 출신으로 구성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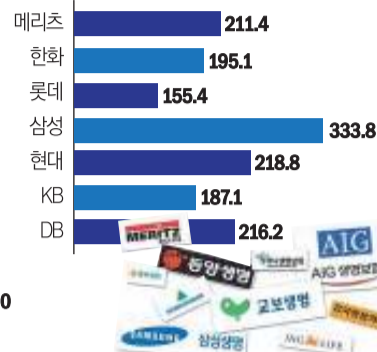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보험 자본건전성 전진화 회의에서 "은행권(바젤), 증권업권(순자본비율) 등 개선된 자본건

생보·손보 RBC 비율 (단위: %, 2018년 12월 말 기준)

### 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



전성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업권의 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킵스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킵스 관련 감독규정 개정 작업 업무, 새 회계기준(IFRS17), 부채적정성평가(LAT)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자본확충 상황이 녹록지 않아 킵스 2차 가안은 규정 완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시장 상황이 자본을

늘리기 위한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점이 골칫거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낮을수록 보험사의 예상 자산운용이익률도 내려가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보험사 전체 RBC 비율(261.2%)이 전기의 261.9%보다 0.7%포인트 떨어진 데는 저금리 영향이

## 신지급여력제도 (K-ICS·킵스)

보험 부채 평가 방식을 원가에서 시장금리를 반영한 시가로 변경하고, 보험사의 리스크를 세분화해 산출하는 건전성제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 시행에 맞춰 현재 보험금지급여력제도(RBC)를 신지급여력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크게 작용했다. 이 때문에 당국 내에서도 신중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중소형사 대부분은 자본확충 여력을 소진한 상태로 킵스 시행 후 몇 년 안에 문 닫는 보험사들도 나올 것"이라며 "킵스 기준을 완화해준다고 하더라도 대형사나 소형사나 대규모 자본확충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종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 삼성화재, 글로벌 보험시장 '英 로이즈' 진출

### 캐노피우스사에 1700억 투자 전략 주주로 경영 참여 계약

삼성화재가 글로벌 보험시장인 영국 로이즈에 본격 진출한다. 로이즈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52조 원에 달한다.

삼성화재는 2일 영국 런던에서 로이즈 캐노피우스사를 100% 소유하고 있는 포트나담코 유한회사에 1억5000만 달러(약 1700억 원)를 투자, 전략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캐노피우스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보험시장의 심장부인 로이즈에 진출, 이사회 구성원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체결 후 악수하고 있는 최영무(왼쪽) 삼성화재 사장과 마이클 왓슨 캐노피우스 회장. 사진제공 삼성화재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 본격적인 글로벌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3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 로이즈 보험 시장은

축적된 통계와 정교한 언더라이터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특종 보험시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해 왔다.

캐노피우스사는 4월 18일 미국 암트러스사의 로이즈 사업부문 인수계약을 체결, 2020년 업계 10위에서 5위권으로 시장 지위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양사는 파트너십과 역량을 강화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삼성화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로이즈는 런던을 중심으로 전세계 80개국에서 테러, 납치, 예술품, 전쟁, 신체, 공연 관련 배상보험 등 고도의 특화된 리스크를 인수하는 글로벌 보험시장이다. 서지연 기자 sjy@

## 신용카드 결제액 1년새 4% '경춤'

### 미세먼지 물품 구매 증가 영향

올해 1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과 승인 건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세먼지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개인카드 사용은 늘었지만, 법인카드 사용은 줄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신금융협회는 6일 올해 1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이 각각 200조8000억 원과 49억3000만 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3.9%와 10.4% 증가한 수치다. 협회 측은 카드 사용 증가세에 대해 "온라인 구매 수요 증가와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가전제품과 물품 구매 수요가 늘었다"며 "이 밖에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확대, 스포츠와 오락 관련 분야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카드 사용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

가했지만 법인카드 사용은 10.5% 줄어 대비됐다. 개인카드 승인 금액과 승인 건수는 각각 167조8000억 원과 46억3000만 건, 법인카드드는 각각 33조1000억 원과 3억 건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개인카드 승인 실적은 미세먼지 심화로 인해 소비 수요 약화와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등 전년 동기 소비 촉진 요인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용액 감소에 대해선 "영업일수 감소와 카드사 수익성 개선을 위한 법인 대상 영업 축소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1분기 신용카드 승인 금액은 156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고, 체크카드는 44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늘었다.

정용욱 기자 dragon@

www.douzone.com

# 인공지능 ERP

##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집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 기업용 ERP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영업관리
- 무역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외주관리, 서비스관리, 경영정보관리
-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자산관리,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너데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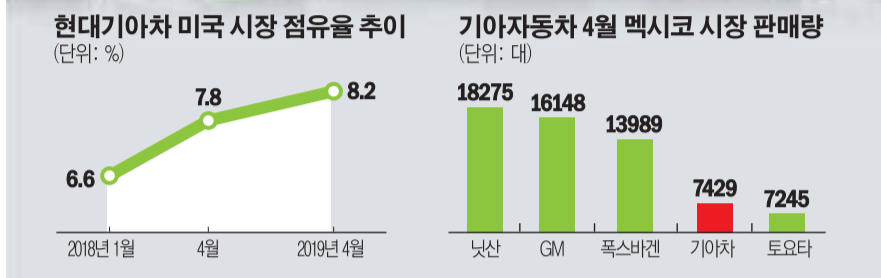


# 현대기아차, 美 시장점유율 8%대 회복

**4월 판매 2년 만에 '봄바람'**  
**텔루라이드·쏘울 신차 효과**  
**아반떼 24%·코나 56% 판매 ↑**  
**멕시코선 기아차 4위 점프**



기아차 멕시코 공장 생산라인 모습. 연합뉴스



현대기아차가 그동안 부진했던 해외 시장에서 재시동을 걸고 판매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2년 만에 점유율 8%대를 회복했다. 기아자동차(기아차)는 멕시코에 진출한 지 약 4년 만에 시장점유율을 4위로 끌어올렸다.

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4월 미국 시장 합산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8.2%이다. 각사별로 살펴보면 현대차는 4.3%, 기아차는 3.9% 점유율을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2017년 4월에도 점유율 8.2%를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과 2018년 1월에 6.6%까지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점유율 상승에는 기아차의 대형 SUV 텔루라이드 등 신차 출시가 영향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미국 판매량은 현대차 5만 7025대, 기아차 5만 1385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와 1.6% 증가했다.

현대차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의 4월 판매량은 1만 5915대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3.7%나 늘었다. 소형 SUV 코나는 5514대로 55.5% 급증했다. 제네시스는 G70 판매가 본격화하면서 1605대 팔렸다. 작년 동월보다 56.1% 늘

어난 규모다.

기아차 텔루라이드는 지난달 5570대가 판매되며 두 달 연속 5000대를 넘어섰다. 미국 시장 입맛에 맞는 사양과 합리적 가격 등으로 인기를 구가하면서 2월 출시 이래 누계 판매 1만 965대를 기록했다.

쏘울은 텔루라이드 이상의 인기를 구사

하고 있다. 쏘울의 4월 판매량은 1만 431대로 작년 동월보다 18.2% 증가했다. 지난달에도 1만 대 이상 판매되는 등 두 달 연속 1만 대를 넘었다.

멕시코 시장에선 기아차의 활약이 눈부시다. 멕시코자동차협회와 기아차 멕시코 법인 등에 따르면 기아차는 4월 7429대(점유율 7.6%)를 판매하며, 시장점유율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7245대(점유율 7.4%)를 판 도요타를 제치고 이룬 성과다. 기아차가 멕시코에서 4위로 올라선 것은 2015년 7월 현지 시장에 진출한 지 3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기아차는 멕시코 시장에 발을 디딘 이후 꾸준히 판매량을 높여갔다. 2015년 1만 1021대(점유율 0.8%)를 시작으로 2016년 5만 8112대(점유율 3.6%), 2017년 8만 6713대(점유율 5.6%)를 판매했다. 2018년에는 9만 4234대를 기록, 전체 시장의 6.6%를 차지하는 5위 업체로 성장했다.

오라시오 차베스 기아차 멕시코법인 현지 총괄 이사는 "그동안 현지 맞춤형 전략을 수립, 일관되게 시행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현지화된 판촉 및 브랜드 전략으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아시아나, 20년 이상 항공기 5년 안에 절반 감축 계획

아시아나항공이 기령(비행기 사용 연수) 20년 이상인 노후 항공기를 5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아시아나항공은 2023년까지 20년 이상 된 노후 항공기를 현재 19대에서 10대로 줄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유 항공기에서 노후 항공기 비중은 현재 23%에서 13%까지 줄어들게 된다.

아시아나는 그동안 노후 항공기 비율이 국적 항공사 중 가장 높아 지속적으로 안전 우려가 제기돼왔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기령 20년 이상 항공기는 총 42대로 전체 여객·화물기 401대의 10.6%에 해당한다.

항공사별로는 아시아나항공이 22.4%(85대 중 19대)로 가장 높고, 대한항공 10.7%(168대 중 18대), 이스타항공 9.6%(21대 중 2대), 티웨이항공 3.9%(26대 중 1대) 순이다.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올해 안에 기령 20년이 지난 항공기를 모두 반납할 계획이다.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3개 항공사는 20년 이상 노후 항공기가 없다. 화물기만 2대를 보유한 에어인천은 2대 모두 기령이 20년을 넘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삼성 파운드리 두 돌...글로벌 점유율 차곡차곡

**1분기 4%P 높이며 1위 맹추격**  
**EUV 개발·패키징 사업 인수 등**  
**美·中·日·獨 포럼서 전략 소개**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 같은 목표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다. 2년 전부터 파운드리 사업부를 신설하고 꾸준히 관련 분야 연구개발과 투자에 나선 결과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가 신설된 지 오는 12일이면 만 2년이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5월 12일 시스템LSI 사업부에서 파운드리팀을 떼어내 '파운드리 사업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

을 단행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 강화에 힘을 쏟아왔다. 작년 5월에는 DS부문 내 연구개발(R&D) 조직에 '파운드리 연구소'를 추가하고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지난달 EUV(극자외선) 기술 기반 '5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하는 등 메모리에 이어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초격차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이달 안에 7나노 제품을 출하하고, 올해 내에 양산을 목표로 6나노 제품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최신 파운드리 생산시설인 화성캠퍼스 S3 라인에서 EUV 기반 최첨단 공정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화성캠퍼스 EUV 전용 라인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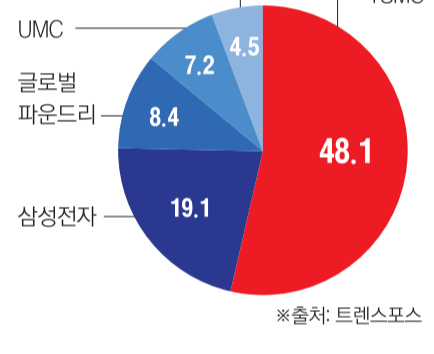
년부터 본격 가동해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는 삼성전기의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인수했다. 패키징 능력을 키워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다. 패키징은 반도체 칩을 보호하는 물질을 씌운 뒤 입출력 단자를 연결하는 후공정 작업이다.

시장 점유율에서도 이미 TSMC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TSMC의 올 1분기 시장 점유율은 전년보다 2.7%포인트 빠진 48.1%에 그쳤다. 반면 삼성전자는 19.1%로 3개월 새 4%포인트 넘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TSMC를 맹추격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전 세계 5개국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순차적으

## 파운드리 세계 시장 점유율 (단위: %)



\*출처: 트랜스포스

로 개최한다. 먼저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타클라라에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SFF) 2019'을 열고 파운드리 사업 전략과 첨단 공정 기술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5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7월 3일에는 서울에서, 9월 4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10월 10일에는 독일 뮌헨에서 각각 파운드리 포럼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영록 기자 syr@

## 두산로보틱스 '협동 로봇' 전국기능대회 경기용 선정

두산로보틱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산업용 로봇 직종 과제를 수행할 공인 로봇 공모에서 자사 협동 로봇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매년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 숙련 기술인 대회로 산업용 로봇, 모바일로보틱스 등 50개 직종에서 경연을 벌인다. 그중 산업용 로봇 직종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2020년부터 3년간 두산로보틱스 협동 로봇을 활용해 경연하게 된다.

두산로보틱스는 공모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국제안전인증(ISO 13849-1)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 다양한 현장 적용 사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모비스·MIT, 미래차 맞춘 경영진 기술 컨퍼런스 개최

현대모비스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와 미래차 관련 기술교류를 확대한다. 현대모비스는 3일 경기도 용인 소재 기술연구소에서 MIT와의 산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영층 대상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행사에는 박정국 현대모비스 사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회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MIT 경영대학 교수이자 미국 연방정부 혁신 자문인 마이클 슈라지(Prof. Michael Schrage) 교수가 '차세대 IT'를 주제로 강연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미래차 신기술 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 MIT 산학프로그램(Industrial Liaison Program·ILP)에 가입한 바 있다.

MIT 산학프로그램은 첨단 기술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1700여 개 동문 스타트업이 모인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집단 지성'을 통해 연간 특허 수입만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조선업계, 해양플랜트 등 대규모 수주 기대감

**카타르서 12조대 입찰 제안**  
**해양플랜트 사업도 기지개**  
**사우디·호주 등 5곳 발주**

오랜 불황을 겪던 조선업계가 대어 낚이에 본격 나섰다. 특히 해양플랜트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의 드릴십 리스크가 해결되는 등 업황 회복의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해 조선업계의 최대어로 꼽히는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전이 본격화됐다.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QP)은 최근 한·중·일 주요 조선사에 LNG 운반선 입찰 제안서를 보냈다. 발주 규모가 60척에 달해 총 수주 규모가 12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빅3 모두 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력,



실적 등을 감안하면 수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전 세계 발주된 LNG운반선 총 16척 중 절반(8척)을 수주한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국내 조선사들이 13척(81%)을 수주한 상태다.

아울러 최근 삼성중공업이 2년 만에 1조 1000억 원 규모의 대형 해양 플랜트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있던 대형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전이 예고돼 있다.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과 정기선 부사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등 빅3 조선사 최고

경영자들은 이달 6-9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양플랜트 박람회 'OTC(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에 참석해 글로벌 주요 인사들을 만나며 수주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 예고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마르잔, 호주 바로사, 나이지리아 봉가사우스웨스트, 캐나다 키스파, 베트남 블록 B 등 총 5개다.

전반적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실적도 속도를 내며 목표치를 향해 달려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수주 목표 대비 달성률은 현대중공업이 약 10%(16억 달러 수주), 대우조선해양 30%(84억 달러 수주), 삼성중공업 33%(26억 달러)로 순항 중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최근 소남골 원유시추선(드릴십) 2척의 인도 성공에 이어 계약이 해지돼 재고로 보유 중이던 마지막 드릴십 1척의 매각도 완료하며 '드릴십 리스크'를 모두 해소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2019 아반떼' 오늘부터 판매

현대자동차는 '2019 아반떼'를 7일부터 본격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2019 아반떼는 기존 최상위 트림에만 적용했던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모든 트림에 적용했다. 아울러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 조합을 패키지로 묶은 '베스트 초이스'(현대스마트센스 패키지 II+내비게이션 패키지 II+하이패스 시스템)를 새롭게 출시했다.

베스트 초이스 패키지는 △차량 구매 고객 약 90% 이상이 선택하는 8인치 내비게이션-하이패스 시스템 △전방 충돌방지 보조(보행자 추가), 후방 교차충돌 경고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묶어 192만 원에 제공한다. 2019 아반떼의 엔진/트림별 가격은 스마트트림 기술린 1.6이 스타일 1558만 원(IVT 적용 기준, M/T 기준 1411만 원), 디젤 1.6프리미엄 2454만 원, LPi 프리미엄 2365만 원 등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1921년 6월 프랑스 '한우친우회'결성식 연설

임시정부 최초의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퍼트렸던 황기환 선생

영어와 프랑스어로 쓰인 잡지,  
'자유한국'을 발간해  
대한독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유럽의 각국을 끈질기게 설득해  
강제 귀국 위기에 처한 해외 동포들을  
유럽 곳곳으로 이주시켰던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이 희망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 Hope Together.

함께 시작하는 희망의 100년



100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신한금융그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애국 열사들을 되새기고 100년 전 그들의 정신과 함께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 - 1923. 4. 19 **황기환 선생**  
대한민국 최초의 외교관이자 독립운동가.  
1904년 10대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군으로 참전하는 등 독특한 이력을 가진 황기환 선생은 김규식 선생의 제안을 받아 1919년 6월 파리강화회의의 한국대표부에 합류하여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권리를 알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는 미국에서 순국, 뉴욕의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자료제공처 : 독립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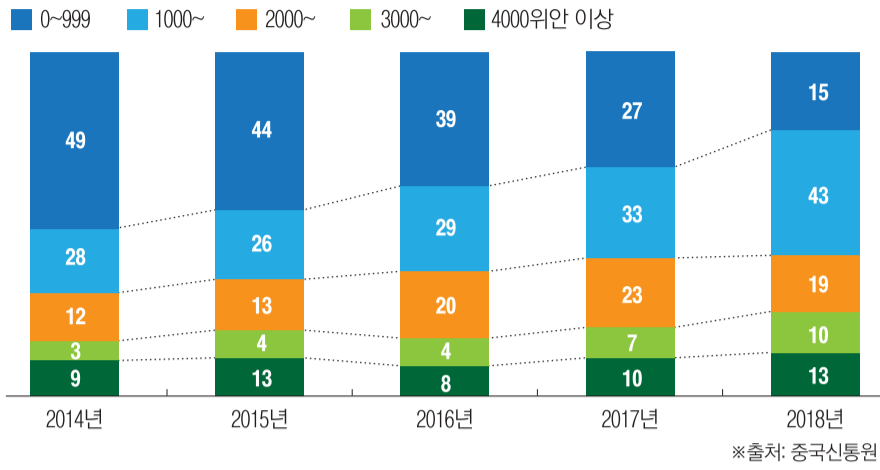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 지갑 얇아진 중국인 잡아라...기업들 '중저가' 확대

중국 스마트폰 가격대별 출하량 (단위: %)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 A60(왼쪽)과 베이징현대의 중국 전략형 모델 밉투. 밉투는 140 플 랫폼을 바탕으로 편의장비와 가격을 줄여 쏘나타 아랫급 모델로 출시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현대차

## 삼성 20만원대 갤럭시 A60 中 온라인 예약 두 차례 완판 4분기 만에 스마트폰 점유율 ↑ 항공·자동차 저가 마케팅

국내 기업들이 저가(低價) 마케팅으로 14억 인구의 거대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중국이 본격적인 저성장기에 들어가면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겨냥, 재계의 중저가 전략이 다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초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A60과 A40S를 나란히 출시한다. 이 가운데 25만 원대의 갤럭시A60은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친 온라인 예약에서 완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000위안(약 69만 원) 이상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3%로 3위를 기록했다. 반면, 4000위안 아래인 중저가 시장에서 삼성은 순위권에 들지 못하며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화웨이, 아너(Honor), 비보(vivo), 오포(OPPO) 등 중국 브랜드들이 값싼

스마트폰으로 시장을 장악한 탓이다.

최근 5년간 중국 스마트폰 시장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1000위안(약 17만 원) 이상 중가 가격대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000~1999위안 가격대의 핸드폰 출하량은 2014년 28%에서 지난해 43%로 늘었다. 2000~2999위안은 12%에서 19%로, 2000~3999위안 가격대도 3%에서 10%로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 점유율 1%의 벽을 뚫기 위해 프리미엄 시장은 갤럭시S10 시리즈로, 중저가 시장은 갤럭시A 시리즈로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전략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0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1.1%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1%대 점유율을 회복한 것은 작년 1분기 이후 4분기 만이다.

저비용 항공사(LCC)인 티웨이(泰航)는 중국 하늘길 확장에 나섰다. 티웨이항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베이징(다싱) △인천-선양 △대구-베이징 △청주-엔지 등 수도권과 지방발을 포함해 총 9노선 주35회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5년 만에 중국 노선을 배분받아 기존 정기 노선을 포함해 총 13개의 중국 노선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된 중

국노선 취항을 통해 티웨이항공만의 차별화된 운임과 서비스로 한·중 간 여행 및 상용고객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와 양국 간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체 역시 중국 중저가 시장을 노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현대기아차는 첨단 기술력과 등급 최고의 실내 공간을 앞세워 SUV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중국형으로 손본 현저 전략형 싼타페(현저명 쉑다)가 대표적이다. 동급 일본차보다 가격이 싸고 중국 토종 브랜드와 비교해 소폭 비싼 수준에 판매된다. 나아가 가격대별로 촘촘한 모델을 채워 넣어 어떤 수요층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내놨다. 국내에서는 준중형차(아반떼)와 중형차(쏘나타)가 각각 한 차종이지만 중국은 사정이 다르다. 아반떼 아랫급으로 값싼 구형 아반떼가 팔리고, 윗급으로 준중형 스포츠 세단 '라페스타'가 존재한다. 중형세단 쏘나타와 함께 쏘나타보다 값싼 중형차 '밉투'를 팔고 있다. 모델을 다양화하면서 등급별로 가격경쟁력을 확대하고, 신형과 함께 값싼 구형을 동시에 판매하는 전략으로 승부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하유미 기자 jscs508@  
권태성 기자 tskwon@

## CJ대한통운, 美 물류업계 리더들에 눈도장

### '어썸 심포지엄' 스폰서 참여 북미시장 사업 확대 본격화

CJ대한통운이 글로벌 여성 리더들과 미국 물류시장 사업 확대를 본격화한다.

CJ대한통운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2019 어썸 심포지엄(AWESOME Symposium, Reaching Beyond and Achieving More)'에 스폰서로 참여해 미국 물류업계 주요 여성 리더들에게 CJ그룹과 CJ대한통운을 소개했다.

어썸은 물류·SCM(공급망관리) 업계 및 학계 여성 리더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영리단체다. CJ대한통운이 지난해 인수한 DSC로지스틱스의 앤 드레이크 전 회장에 의해 2013년 설립됐고, 1300명 이상의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포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50'에 선정되고 현 스타벅스 최고운영자인 로즈 브루어와 전 우주비행사 캐디 콜먼을 포함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월마트, 힐튼 등 350여 명의 글

로벌 리더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CJ대한통운은 2일(현지시간) 진행된 '네트워킹 리셉션(Networking Reception)' 시간에 미국 물류업계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CJ그룹과 CJ대한통운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어썸의 창립자이자 DSC로지스틱스의 드레이크 전 회장은 "2018년 8월부터 DSC로지스틱스는 CJ대한통운과 함께하게 됐고, 이는 두 회사 모두에게 적절한 타이밍과 선택이었다"며 "DSC는 CJ대한통운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CJ아메리카 안젤라 길로렌 이사는 "CJ대한통운의 모회사인 CJ그룹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여성임원 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며 "CJ대한통운은 CJ그룹의 경영철학에 기반해 전 세계에 있는 여성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CJ대한통운은 DSC로지스틱스와 시너지 효과를 기반으로 미국 물류시장으로의 사업 확대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세척력 손 설거지보다 26% 더 뛰어나"

LG전자는 디오스 식기세척기의 세척력과 효율성이 손 설거지보다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3월 말 출시된 LG 디오스 식기세척기는 토네이도 세척 날개, 100°C 트루스팀 등으로 세척력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실험 결과는 LG전자가 최근 부산대학교 감각과학연구소 이지현 교수팀과 함께 진행한 '식기세척기와 손 설거지 비교 행동연구'에서 나왔다.

연구는 디오스 식기세척기를 대상으로 했으며 20대, 30대, 40대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각 10명씩 총 30명의 일반인이 참여



부산대학교감각과학연구소 이지현 연구원이 LG 디오스 식기세척기의 세척력을 실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했다. 연구팀은 고객들이 일상에서 주로 겪게 되는 상황들을 가정했다. 음식물 오염된 식기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LG 디오스 식기세척기의 세척력이 손 설거지보다 약 26% 더 뛰어났다. 또 식기세척기가 사용한 물은 손 설거지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세계 사용량도 손 설거지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A RECORD OF 36 days, 2 hours, 37 minutes - LIMITED EDITION

HONG KONG - LONDON  
THE TEA ROUTE

MASERATI  
COLLECTION



# “인테리어 시공 ‘먹튀 사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 인터뷰

### 황인철 ‘인테리어’ 대표

2016년 4월 1일 만우절, 황인철(47) ‘인테리어’ 대표는 사직서를 던졌다. 동료들은 만우절 날 회사를 나가겠다는 그를 믿지 않았다. 가구업계 1위 한샘에서 투자관리부 이사로 남부러울 것 없었던 그가 늦깎이 창업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었다. 변화하는 인테리어 시장을 주도하고 싶다는 야심이 가장 컸다. 그를 직접 만나 4년 만에 훌쩍 큰 인테리어의 성장 이야기와 남다른 포부를 들어보았다.

한샘에서 13년을 일한 황 대표가 그해 창업한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이다. 단순 중개를 넘어선 책임 매칭 플랫폼을 지향한다. 인테리어 시공 시 ‘먹튀’를 포함한 모든 사고와 문제를 인테리어가 책임진다는 의미다.

황 대표는 2016년 12월 베타 서비스를 선보인 뒤 2017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했다. 출시 1년째인 2018년 3월, 월 거래액 10억 원, 그해 10월에는 25억 원을 기록했다. 황 씨는 “상반기 중에 월 거래액 50억 원, 하반기 내에 100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테리어는 지난달 벤처캐피털로부터 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매출액과 투자 모두 현재는 안정적이지만, 황 대표가 사업에 나설 때만 해도 우려의 시선이 더 많았다. 일단 창업 당시 만으로 마흔셋이던 그의 나이가 적지 않았다. 삶의 경로도 순탄했다. 1997년 현대건설 입사, 2000년 재무 전공으로 대학원 입학, 2004년 한샘 입사 뒤 그는 안정적인 생활을 누렸다.

**인테리어 비교 견적·중개 서비스 연대보증개념 도입 1년 무상 AS 단순 중개 넘어 ‘책임 매칭’ 지향 출시 1년반 만에 월거래액 25억 하반기 내 월거래액 100억 목표**

그런데도 기어이 창업에 도전했던 데는 오랫동안 오프라인 시장에 머물렀던 인테리어 시장이 바뀔 것이라는 직감 때문이었다. 2014년 황 대표는 이사하면서 깨달았다. 그가 이사한 곳은 분양받은 지 28년 된 아파트로, 집주인은 28년간 한 번도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았다. 황 대표는 수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황 씨는 “표준화된 거래 절차도 없고,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도 있었다”며 “계약서를 쓰더라도 양식이 다 달랐고, 중간에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말



황인철 인테리어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인테리어 개요 \*월 거래액은 2018년 10월 기준

|        |          |           |       |
|--------|----------|-----------|-------|
| 대표     | 황인철      | 누적 투자 유치액 | 66억 원 |
| 서비스 시작 | 2017년 3월 | 월 거래액     | 25억 원 |

했다. 이어 “AS 이야기를 꺼내면 업체들은 전화를 안 받곤 했다”며 “4000만 원을 들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렇게 큰돈을 들고 왜 이렇게 불확실하게 의사 결정을 해야 하나’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1만 원짜리 야식을 시켜도 꼼꼼히 정보를 비교하는 시대. 메뉴뿐 아니라 결제 수단, 포장 용기 등 여러 옵션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하물며 야식 하나에도 여러 선택지와 안정성이 보장되는 시대에 황 대표는 여전히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는 인테리어 시장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민었다. 인테리어 창업 전 인테리어 비교 견적 온·오프라인 연계(O2O) 업체로 ‘집닥’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다. 관련은 차별화였다. 황 씨는 인테리어가 ‘먹튀·사후관리(AS) 미이행·자재 바꿔치기’ 등 3대 핵심 사고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데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테리어는 중개 플랫폼인데도 1년간 무상 AS를 책임진다. 동시에 인테리어 업체가 중간에 연락이 끊기거나 파산해도 인테리어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시공을 마감한다. 연대보증 개념을 도입해 인테

리어 업체가 만약 AS를 안 해줘도 인테리어가 자비를 들여 선조치한다. 업체의 문제를 인테리어가 책임진 사례는 2년간 3건이었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황 대표는 인테리어가 직접 이를 마무리하면서 보람도 크게 느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작년 4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사는 고객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업체와 연락이 끊긴 일이었다. 당시 인테리어는 4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시공을 마감했다. 황 씨는 “사고가 없는 것이 최선이지만, 피해를 당한 고객은 크게 감사함을 표사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O2O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과 시간 면에서 O2O 서비스 중 가장 부담이 큰 산업이다. 비용은 몇 십만 원에서 몇 천만 원, 기간은 며칠에서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황 씨는 “O2O 서비스 중 가장 어려운 O2O가 인테리어”라며 “그만큼 꼭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쉽고 편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8월에 출시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에 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엔씨소프트 출신 김영선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합류한 만큼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선별해주는 앱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 대표는 “김 CTO는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에 조예가 있는 분”이라며 “향후 인테리어의 기술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이진민 기자 aaaa3469@

## “유플티비, 이 상품 주문해줘”

LG유플러스와 GS샵은 생방송 TV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음성으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AI홈쇼핑 서비스를 5일 출시했다.

AI홈쇼핑은 △주문 및 결제 △주문 취소 △방송알림 설정 등 음성명령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기존 ARS 전화 연결을 기다리거나 모바일 앱으로 상품을 일일이 확인하고 주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AI홈쇼핑은 휴대폰 번호로 최초 1회 로그인하면 매번 본인 확인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또한 구매하려는 상품이 단독 상품·옵션일

음성으로 배송지를 선택할 수 있다. 배송지는 기존 주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자택 배송지로 설정되며, 등록된 배송지가 없는 경우 U+tv 명의자 주소로 자동 설정된다.

결제 방법은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와 간편결제를 등록하는 절차 없이 신용카드·ARS·무통장입금을 선택하거나 GS샵의 전화 주문을 이용한 고객이면 결제수단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주문한 상품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경우에도 음성명령으로 간단히 처리 가능하다. “주문 취소해줘”라고 말해

TV 화면에 주문내역이 나오면 취소하고 싶은 상품 번호를 말하면 된다.

특히 AI홈쇼핑은 타사에는 없는 특정 상품에 대한 방송편성 정보 검색 및 방송알림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마스크팩 방송 언제 해?”라고 말해 마스크팩 방송 편성표를 확인하고, 원하는 방송을 알림 설정할 수 있다. 알림을 설정하면 방송 시작 30분 전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알려준다.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10월까지 AI홈쇼핑으로 주문한 상품 금액의 7%를 GS샵 적립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이후에는 상품 금액의 5%를 적립금으로 기본 제공한다.

김범근 기자 nova@

### LG유플러스, GS샵과 ‘AI홈쇼핑’ 서비스 ARS 연결없이 음성으로 간편 주문·결제 방송편성 정보검색·방송알림 설정 기능도

경우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쿠폰 및 적립금 등 할인 혜택이 한번에 적용되는 등 주문절차를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AI홈쇼핑은 U+tv(IPTV) UHD 셋톱박스를 설치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U+tv 채널 6번 GS샵 생방송 시청 중 ‘U+우리집AI’ 스피커에 “유플티비”라고 부르거나 U+tv 리모컨의 ‘음성’ 버튼을 눌러 “이거 주문해줘”라고 말하면 상품 주문이 시작된다.

우선 TV화면에 나타나는 메뉴의 상품 순서에 따라 “첫번째, “두번째”라고 말해 상품 선택이 가능하다. 이어

## 전통시장·상점가 286곳에 2130억 지원

### 정부, 상인 지원·인프라 개선 ‘상권 르네상스’ 등 사업 진행

정부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286곳을 선정해 총 2130억 원을 투입한다. 온라인 쇼핑과 대형 유통점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지원해 바닥 경기를 살리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 앞서 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지원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자금 투입 방안은 전통시장 상점가의 활력 회복·자생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신규 지원 대상으로 전통시장·상점가 286곳을 선정했다.

이번 지원안의 특징은 개별 시장과 상점가를 각각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장이 포함돼 있는 상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상인 지원과 더불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편히 방문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사업이 시행된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특성화 시장·복합청년몰 등 청년 상인 지원 △주차한

###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 주요내용 (단위: 원)

|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계획                                     | 2019년 예산    |            |
|-------------------|---------------|---|-------------|------------|
|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청년몰 조성, 대학 협력 | 청년점포 및 고객 휴게공간 등이 집합된 청년몰 조성 및 청년상인 창업 지원 | 21곳         | 90억        |
| 시설                | 주차환경 개선       | 공용주차장 건립·개량 및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99곳         | 1423억7300만 |
| 화재 안전 관리          | 노후전선 정비       | 개별 점포의 전선을 정비하여 화재예방                      | 29곳         | 90억9600만   |
|                   | 화재감지 시설       | 개별 점포의 화재감지 및 알람시설 설치                     | 41곳(4508점포) | 131억7500만  |

경 개선·노후전선정비·화재알림시설 마련 등이 포함됐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낙후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상권 특색을 반영해 쇼핑, 지역문화 및 힐링 커뮤니티는 물론 청년창업 기능까지 결합된 복합상권을 조성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해당 상권을 지역을 대표하는 이른바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진주 중앙시장, 광주 양동시장, 경기 구리시장, 천안 역전시장 등이 해당 계획에 따른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다른 부처 사업과 연계해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을 도모하고 자생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성화 시장 사업은 상인들이 주도하는

하향식 프로젝트로 바뀐다. 그간 지원받지 못한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충남 서천특화시장(지역선도시장), 인천 모래내시장(문화관광형시장), 강원 주문진건어물시장(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충북 매향전통시장(특성화 첫걸음 컨설팅) 등 84곳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몰 조성·활성화·확장으로는 부산 남문시장 등 8곳이, 청년몰 대학 협력으로는 부산 국제시장 등 13곳이 뽑혔다. 주차환경 개선 지원 대상은 서울 남성사계시장 등 99곳이 선정됐고, 화재 안전보장을 위한 노후전선 정비는 경기 신장시장 등 29곳, 화재알림시설 설치의 충북 괴산전통시장 등 41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 과기부 ‘온라인 SW교육 콘텐츠 공모전’ 개최

### 교사 대상 다음달 14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전은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된다. 공모 내용은 차근차근 재미있게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는 단계별 미션 해결 방식(최소 7단계에서 최대 15단계)의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 아이디어다.

블록코딩과 텍스트코딩 등 총 2개 부문으로 공모한다.

참가 대상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전국 초·중·고교 교사로 교과는 구분하지 않는다. 시상은 부문별 대상 1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우수상 2점(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 등 총 6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tati@



# 코오롱 알고도 숨겼나... '인보사 사태' 논란 확산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년 전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주요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인보사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미국 현지 실사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을 비롯한 제조용 세포주 제조소, 세포은행 보관소 등을 방문해 세포가 바뀌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코오롱티슈진이 3일 저녁 세포성분이 바뀐 사실을 회사 측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공시하면서 식약처의 현지 실사는 인보사 사태의 윤리적 문제 사실 확인에 집중될 전망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입

장제약사와 소송 과정서 밝혀져 美자회사 "2년 전 오류 알아" 공시

코오롱은 "전혀 몰랐다" 되풀이

식약처, 美 현지실사 20일 확정 제출자료 등 종합 행정처분 결정

장이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주장대로라면 자회사와 심각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는 셈이고, 알고도 은폐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코오롱 측의 주장처럼 한 가지 성분으로만 비임상과 임상 을 거쳤는지, 중간에 성분변경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만약 성분이 변

경된 사실을 고의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관련 사안까지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를 토대로 종합 판단해 허가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지 실사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신장세포가 사용됐다는 회사 측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코오롱티슈진의 마스터 셀 뱅크(MCB)를 확인하고 STR(유전학적 계통) 검사로 2액의 293유래세포가 최초 세포에서 유래했는지, 최초 세포에서 293유래세포의 유전학적 특성이 나타나는지도 검사해 개발 초기부터 293유래세포가 사용된 것이 맞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회사 측의 '사실

은폐'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내용과 다른 293유래 세포였다는 사실이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 다나베와의 소송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지면서 3일 코오롱티슈진의 공시를 통해 드러나게 됐다. 미쓰비시다나베는 5000억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에 대한 코오롱생명과학과의 소송과정에서 인보사 임상 시약 위탁 생산업체인 론자의 STR 검사에서 2액이 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또 코오롱티슈진은 3일 공시에서 2017년 3월

론자 검사를 통해 인보사의 2액이 293유래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생산했다는 사실을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했다고 전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관련 내용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는 "세포 성분이 바뀐 점에 대해선 전체 과정에서 동일한 세포를 사용해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제야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 결과 등 미국 현지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 '부진의 늪' 패션·화장품 업계 "위기 탈출구는 온라인"

패션, 화장품 업계가 가두점(로드숍) 위주에서 '온라인 전용 상품' 출시로 유통 채널 확대에 나서고 있다. 가맹점과의 관계, 브랜드 정체성 등을 이유로 유통 채널 다각화에 어려움을 겪어온 패션, 화장품 업계가 가두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온라인 전용 상품을 출시해 가맹점과의 갈등을 피하며 유통 채널 확대를 꾀하는 모양새다.

길거리에 가맹·직영 점포를 내는 방식으로 유통망을 확장해 온 패션, 화장품 업계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며 매출 부진을 겪어왔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1조 1953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온라인 상품 거래액이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높아졌다.

유아동 전문기업 제로투세븐의 패션 브랜드 포래즈(FOURLADS)는 지난달 단독 온라인몰인 '포래즈몰'을 공식 론칭했다. 제로투세븐의 기존 유통 채널은 그동안 가두점과 대형마트에 집중돼 있었지만 포래즈몰을 통해 온라인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제로투세븐 측 관계자는 "포래즈 브랜드만 따로 떼어내 온라인몰을 만든 것은 온라인 채널 강화를 위한 테스트"라며 "장기적인 목표는 오프라인 판매에서 벗어나 온라인 판매 위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의 빈플레이디스는 지난달 온라인 전용 상품 '그린 빈폴'을 출시했고, 화장품 로드숍 네이처리퍼블릭

도 '바이플라워 벨벳 듀이 티트', '10구 멀티 팔레트', '캡처 마라클 앰플' 등 온라인 전용 상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온라인 전용 상품 출시와 함께 사전 예약 이벤트나 제품 출시 전 체험단 모집 행사를 펼치는 등 각종 마케팅에도 적극적이다.

유아동 기업 아가방 역시 온라인 전용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아가방 관계자는 "온라인쇼핑 비중이 커지면서 온라인 사업 중심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전용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전용 상품 출시를 넘어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아예 정체성을 바꾸는 브랜드도 등장했다. 한섬은 잡화 브랜드 '덱케(DECKE)'를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전환했다. 한섬 측은 "백화점에서 판매하던 덱케를 백화점에서 철수하고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덱케는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의 새 단장을 선언하며 3월 온라인 제품 '아코디언(Accordion)' 외 핸드백 6종을 출시했다.

한섬 관계자는 "짧은 유행 주기와 가성비 중시하는 '패스트 패션'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핵심 고객층을 기존 20~30대 여성에서 10~20대로 변경하고 판매가도 기존 5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한섬의 덱케 신제품 '아코디언' 백.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유아동 의류브랜드 '포래즈' 지난달 단독 온라인몰 론칭 빈플레이디스 '그린 빈폴' 출시 한섬 '덱케' 온라인브랜드 전환

## 한달새 16.5% 쯤췌... '金접살' 된 삼겹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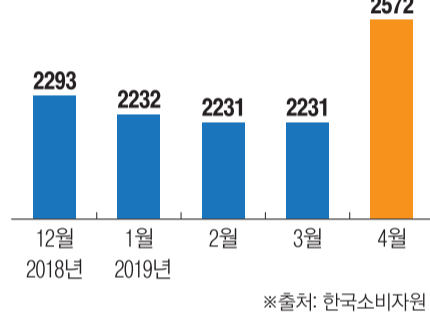
지난달 말 기준 100g당 2663원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올라 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여파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한 달 새 본격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돼지고기 삼겹살 100g당 소매가격은 2663원으로 일주일 전 대비 4.8%(122원) 올랐다. 한 달 전인 3월 말에 비하면 16.5%(377원), 1년 전보다는 19.4%(433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월별 평균 가격을 살펴보면 지난해 5월 삼겹살 100g은 2071원에 판

돼지고기 삼겹살 월별 소매가격 (단위: 100g당 원)



매됐으나 지난달에는 2572원으로 1년 만에 24.2%(501원)나 상승했다.

더욱이 본격적인 행락철인 휴가철을 맞아 국내에서도 삼겹살 등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데다 세계 돼지고기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면서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어 국내에서도 동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시작된 무렵인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보다 16.7% 줄어든 6만9830톤으로 집계됐다.

농업관측본부는 "국제가격 상승으로 5월 돼지고기 수입량도 지난해 4만9000톤보다 줄어든 4만톤 안팎이 될 것"이라며 "돼지고기 국내 생산량이 늘겠지만 국제 가격이 오르면 국내 수입이 줄어들게 돼 도매가격은 kg당 4600~4800원으로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상반기까지는 작년에 수입한 돼지고기 재고 물량이 남아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재고 물량이 바닥되면서 가격 상승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 "저주파 소형 안마기... 어버이날 선물로 안성맞춤"

이마트, 가정의 달 할인 행사 '일렉트로맨 목·어깨 마사지기' 시중 유사제품보다 30% 저렴 코지마 등 안마의자도 할인

5월 '가정의 달'은 유통업계에서 '안마기 대목'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5월 안마기 매출 비중이 12%로 추석이 있던 9월(14%)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대대적인 '안마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일렉트로맨 목·어깨 마사지기'는 22일까지 할인 판매한다. 지난해 선보인 유선 방식 제품을 5만9800원에 판매, 시중 유사 제품들보다 약 30% 저렴한 가격이라고 이마트 측은 설명했다. 이달 새롭게 내놓은 무선 방식 제품도 정가 대비 20%가량 할인해 7만9800원에 판매한다. 일렉트로맨 마사지는 인체 공학적인 'U자' 형태로 목, 어깨를 동시에 감싸 마사지한다. 실제 손마사지에 가까운 3D 입체 손지압 형태를 구현했다.

최근 온라인과 SNS상에서 인기를 끄는 저주파 소형 마사지도 선물용 세트로 기획해 저렴하게 판매한다. 허리, 어깨, 옆구리 등 안마가 필요한 부위에 부착해 사용



6일 이마트 왕십리점 일렉트로마트에서 모델들이 할인 판매 중인 안마기를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하는 제품으로 마사지기 2개, 일반 패치 4개, 허리·어깨용 패치 1개 등으로 구성된 '힐로 저주파 마사지기 스페셜 세트'는 5만9800원이다.

코지마, 휴테크, 브람스 등 유명 브랜드 안마의자도 행사 기간 카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마트e, 삼성, KB국민, 현대, BC, NH농협, 우리, 기업, 씨티, 이마트 SC 등 카드 구매 고객에게 최대 40만 원을 깎아준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는 단독 상품인

'더마사지부츠'를 12일까지 신세계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3만 원 할인해 21만8800원에 판매한다. 이 제품은 발 전체, 종아리 등을 부위별로 마사지하는 제품이다.

양승관 이마트 가전 바이어는 "안마의자가 대중화하면서 안마기에 관심과 수요가 높아졌다"면서 "고객 니즈에 따라 후대가 간편하고 세분화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가정용 안마기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5월에 사라”는 증권가

글로벌 경기 개선 가능성 커  
강달러 현상 주가 부담에도  
5월 코스피 호재 ‘긍정론’ 확산



증권사들이 ‘최악은 지났다’는 평가와 함께 ‘Buy in May (5월에 사라)’를 외치고 있다. 미국 월가의 오랜 격언인 ‘Sell in May and Go Away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의 정반대 투자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5월 코스피가 악재보다는 호재를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강달러 현상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기 개선 흐름 가능성에 바탕을 지났다 분석이다.

5월 매수를 권고하는 이유로 △하반기 글로벌 경기 개선 가능성 △반도체 업황 개선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타결 긍정론 △Fed(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 비둘기파적 시각 선회 △연이은 중국 총력부양 시도 등을 꼽았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여러

정황상 경기 지표 추가 악화 가능성이 낮아졌다. 미중 간 무역 분쟁 타결 등은 5월 코스피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Sell in May’가 틀릴 확률에 베팅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주 예정된 하커, 카플란, 에반스, 보스틱 등 주요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주목할 대목이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일 기준금리를 움직여야 할 강한 근거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에 거리를 뒀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들이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드러낼지 주목하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연준 위원 연설에서 미국 1분기 인플레이션 둔화가 일시적이고 2%에 근접할

수 있다고 언급한 파월 의장과 저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요 연준 위원들간의 견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친화적인 완화적 스탠스 확인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최근 숨 고르기 장세를 마감하고 분위기 반전을 찾는 중립 이상의 주가흐름이 예상된다”며 “미중 통상 마찰 리스크가 해빙전환할 것이라는 긍정론이 확산되고 있고 주요국 중앙은행이 비둘기파적 시각으로 선회하며 ‘최악은 지났다’는 안도감이 고조되고 있어 5월 투자전략으로 ‘Buy in May’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치솟는 환율에... 外人 이탈 우려

올 1~3월 헤지펀드 추정 3.3% 유입  
환 손실 경계 선물시장 매도 이어져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70원대로 치솟으면서 국내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율 변동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탓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일 기준 외국인은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1508억 원 을 사들인 반면 주식 선물시장에서는 8804억 원(1만2366계약)을 팔아치운 것으로 집계됐다. 당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0.74% 내린 2196.32로 마감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대량 출회했고, 기관 프로그램 매도로 이어져 지수가 하락했다”며 “증시에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환율이 크게 오르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매수세는 국내증시가 쏠라기보다 신흥국 편드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일부가 한국에 배분된 효과로 볼 수 있다”며 “환율이 상승하자 외국인인 환 손실 경계심에 선물시장에

서 매물을 대량 내놓은 것으로, 환율 상승이 이어지면 본격적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이 달러당 1140원대를 넘어선 4월 22일 이후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 8거래일 중 5거래일을 순매도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0.92% 하락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15년 이후 환율에 따른 외국인 자금 흐름을 보면 1150원 아래에서는 매수, 그 위에서는 매도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특히 올해 1~3월 국내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을 살펴보면 헤지펀드로 추정되는 조세회피 지역 자금이 3조3000억 원으로 전체 유입액의 68%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헤지펀드 자금은 환율이 상승할 때 국내에서 빠져나가고 하락할 때 들어오는 경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영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4월 중순 이후 나타난 달러 강세에 더해 국내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국내증시에서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됐다”며 “기업들의 1분기 실적도 좋지 않아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기자 ljh@

# 올해 공모株 투자 수익률 쏠쏠하네~

웹케시 135%·이지케어텍 122% ↑ 등 12개사 주가 평균 57% 상승

올해 공모주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가 올해 공모주 청약을 거쳐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된 12개사(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의 3일 기준 증가와 공모가를 비교한 결과, 주가가 평균 57.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모주 청약을 통해 해당 주식을 받은 투자자가 아직 보유하고 있다면, 높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업별로는 12개사 중 10개사의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상승했다. 특히 1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웹케시는 이달 3일 기준 주가가 공모가 대비 135%나 올랐다. 웹케시는 금융기관과 기업 시스템을 연결

하는 B2B(기업 간 거래) 전문 핀테크 기업으로, 공모주 청약 당시 947.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원재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웹케시는 모바일 생활화와 핀테크 서비스의 확산에 힘입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인투이트처럼 혁신을 이끄는 미래 성장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의료 정보기술(IT) 기업 이지케어텍의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127.8%를 기록했다. 이지케어텍은 환자정보 관리, 압·퇴원 수속 등 병원 업무를 지원하는 의료정보 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회사다.

화학 소재 기업인 천보의 주가도 공모가 대비 99.8% 올랐다. 이어 코스피 상장기업

## 공모주 수익률

| 기업명    | 공모가(원) | 3일 증가(원) | 수익률    |
|--------|--------|----------|--------|
| 웹케시    | 26000  | 61100    | 135.0% |
| 이지케어텍  | 12300  | 27400    | 127.8% |
| 천보     | 40000  | 79900    | 99.8%  |
| 현대오토에버 | 48000  | 76300    | 58.7%  |
| 드림텍    | 13000  | 20350    | 56.5%  |
| 셀리드    | 33000  | 48600    | 47.3%  |
| 노랑풍선   | 20000  | 27250    | 36.3%  |
| 에코프로비엠 | 48000  | 65300    | 36.0%  |
| 지노믹트리  | 27000  | 35500    | 31.5%  |
| 아모그린텍  | 9900   | 9860     | -0.4%  |
| 이노테라피  | 18000  | 17650    | -1.9%  |

인 현대오토에버(58.7%), 드림텍(56.5%)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아모그린텍(-0.40%), 이노테라피(-1.94%) 등의 주가는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기자 ljh@

하더라도(114만142주) 주식담보대출 비율과 주식 수가 2018년 5월 마지막 5% 지분 공시 시점보다 늘었고, 이후 계약 변동과 관련해 추가 공시가 없었던 점은 공시 미신고 논란의 빌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5% 지분공시와 관련해 주식보유 형태가 변경되거나 보유주식에 대한 주요 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미보고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심사를 해봐야 명확하겠지만 주요계약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내용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았다면 미보고의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동 측은 “최초 담보대출 신고 때 상속 문제가 걸려 있어 애초 대출받은 주식 수보다 10만 주가량 적게 공시가 됐다”며 “이후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 수 증가 당시 공시할 때 이를 반영해야 했지만 미처 인지를 못 했다”고 해명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해외주식형펀드 수익률 19.7%... 국내의 2.15배

미국,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해외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국내주식형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지난달 말 기준 설정액 10억 원 이상 해외주식형펀드 749개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평균 19.66%에 달했다. 이는 국내주식형펀드 수익률(9.14%)의 2.15배 수준이다.

해외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은 다른 유형의 펀드들과 비교해도 높다. 해외채권형(4.52%)이나 국내혼합형(3.87%), 해외부동산형(3.08%), 국내부동산형(1.01%), 국내채권형(0.94%) 등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준이다.

올해 해외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두드러진 이유는 미국과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3.4% 올랐고 미국 나스닥지수는 22.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17.6%,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4.0% 각각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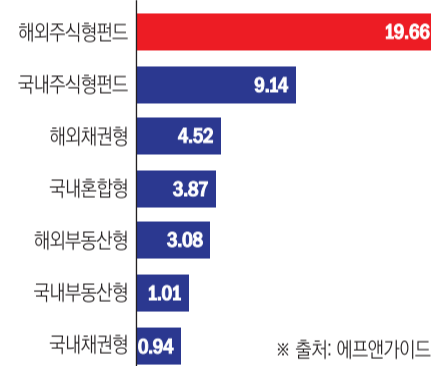
같은 기간 코스피는 8.0% 상승했고, 코스닥지수는 11.7% 올랐다.

해외주식형펀드 중에서도 중국과 미국이 포함된 신흥아시아주식형펀드와 북미주식형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각각 21.95%와 19.88%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 중국의 경기지표가 호전되는

## 펀드시장 동향

(단위: %, 올 초부터 지난달 말 기준, 설정액 10억 원 이상)



※ 출처: 에프앤가이드

양상을 보이면서 당분간 해외주식형펀드의 수익률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발표된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3.2%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중국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50.1%로 두 달 연속 확장세를 유지했다. 이에 이달 2일 기준 해외주식형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0.06%로 지난달 말 대비 소폭 올랐다. 신흥아시아주식형과 북미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각각 22.35%와 20.10% 수준이었다.

반면 국내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은 8.68%로 지난달 말보다 다소 하락했다. 이정희 기자 ljh@

# 국동, 최대주주 주담대 비율 ‘75%→99%’로 늘어

# ‘5% 룰’ 지분 공시 안해 논란

유증 증권신고서 뒤늦게 알려

유가증권 상장사 국동의 최대주주가 체결한 주식담보대출 비율이 최초 75% 수준에서 99%로 변동됐음에도 일명 ‘5% 룰’ 지분 공시를 하지 않아 논란이다.

국동은 1967년 설립된 주문자상표부착 방식(OEM) 니트류류 전문 제조업체로 1996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다. 변상기 대표이사(지분율 9.7%)와 부인인 최주연 씨(0.6%), 아들인 변영섭 이사(2.5%) 외에 특수관계인(5.2%) 등이 18%의 지분을 갖고 있다.

변 대표이사가 주식담보대출 계약 체결과 관련해 최초 공시를 낸 시점은 2017년 1월 12일이다. 당시 변 대표이사는 자신이 보유한 76만4814주 중 74.5%에 해당하는 57만71주를 담보로 신한금융투자에서 차입금 19억 원을 조달했다. 그는 차입금을 바탕으로 같은 달 자사주 6만7533만 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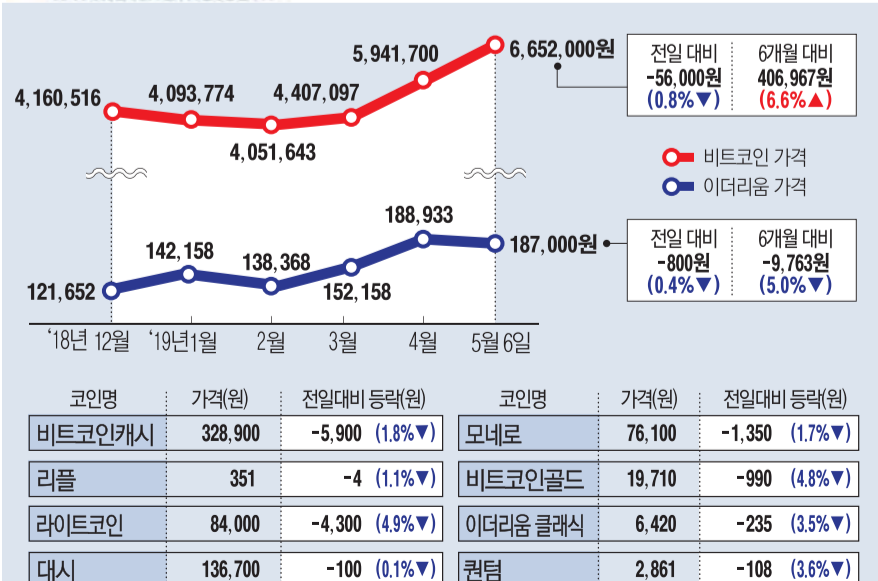
7차례에 걸쳐 장내 매수했으며 백은숙·변상대 씨에게 13만2941주, 5만 주를 각각 상속했다.

변 대표는 이후에도 같은 해 2월까지 2억 2000여만 원 규모로 자사주 2만5939주를 추가로 장내에서 사들였고 5월에는 무상신주 67만4345주를 취득했다. 신주 취득 뒤에도 그는 1만9631주를 추가로 매수해 현재의 주식 수(136만8321주)가 됐다.

문제는 국동이 최근 진행하는 유상증자와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변 대표이사의 주식담보대출 비율이 99% 수준까지 올라갔음에도 5% 지분변동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증권신고서상에는 변 대표 소유 주식 136만8321주 중 주식담보대출로 잡힌 주식은 134만8690주로 98.6%에 달한다.

애초 주식담보대출로 잡혔던 주식 수는 57만71주다. 2017년 진행했던 무상증자(주당 1주 배정)에 따른 주식 변동을 고려

## bithumb 빗썸



| 코인명    | 가격(원)   | 전일대비 등락(원)     | 코인명      | 가격(원)  | 전일대비 등락(원)     |
|--------|---------|----------------|----------|--------|----------------|
| 비트코인캐시 | 328,900 | -5,900 (1.8%▼) | 모네로      | 76,100 | -1,350 (1.7%▼) |
| 리플     | 351     | -4 (1.1%▼)     | 비트코인골드   | 19,710 | -990 (4.8%▼)   |
| 라이트코인  | 84,000  | -4,300 (4.9%▼) | 이더리움 클래식 | 6,420  | -235 (3.5%▼)   |
| 대시     | 136,700 | -100 (0.1%▼)   | 퀀텀       | 2,861  | -108 (3.6%▼)   |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서울 주택 거래절벽 지속... 비싼 아파트 대신 빌라 산다

지난달 아파트 2400건 거래  
지난해 4월 보다 61% 줄어  
다세대는 19% 감소에 그쳐

4월 아파트 및 다세대·연립  
매매거래량 추이 (단위: 건)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전년 변동률  |
|--------|-------|-------|-------|-------|---------|
| 아파트    | 8458  | 7735  | 6199  | 2400  | -61.28% |
| 다세대·연립 | 5302  | 4994  | 4068  | 3290  | -19.12% |

\* 전년 변동률: 2018년 대비 2019년 거래량 변동률  
\* 출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서울 아파트의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빌라(다세대·연립)의 거래량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4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6199건)보다 61.28%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2월 1574건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1163건)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다세대·연립은 거래량에서 비교적 선방했다. 4월 거래량이 3290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월(4068건)보

다 19.13% 감소한 데 그친 것이다. 다세대·연립 거래량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째 아파트 거래량을 앞서고 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92건으로 다세대·연립(5422건)의 2배 가까이 많았다.

투자 수요를 겨냥한 정부 규제가 아파트 거래에 더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많이 오르고 비싼 주택에 양도세·보유세 등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고 가격 변동폭이 작은 빌라에는 영향이 적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아파트 분양가 절반이 땅값인데...

# 내 '고무줄 택지입찰' 도 넘었다

올 부동산 시장 관망세에 슬그머니 규제 완화해

역세권은 최고가 입찰 실시... 지역별 입찰 방법도 달라

건설업체, 입지 따내려 페이퍼컴퍼니로 입찰 참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년간 운영하던 공공택지 입찰 제도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LH가 토지매각에만 집중해 일관성 없는 입찰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가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지에 따라 매각방법을 달리하면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등의 문제를 양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건설사들은 택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택지 공급은 꾸준히 감소세다.

LH가 최근 5년간 공급한 공동주택 용지 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2014년 782만6000㎡, 2015년 694만9000㎡, 2016년 408만4000㎡, 2017년 109필지 409만㎡, 2018년 109필지 415만㎡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LH가 2월 발표한 '2019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 용지'는 83필지 337만㎡로 지난해 대비 20% 이상 줄었다. 때문에 일부 택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대거 동원해 입찰에 몰리며 수천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LH는 이 같은 입찰 제도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2017년부터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회사의 1순위 자격 요건을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300가구 이상인 곳으로 제한했다. 공동주택 용지의 당점 확률을 높이려고 실제도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용지 분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최근 공공택지 입찰에서 과열 양상이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LH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에 빠지자 이 같은 규정을 슬그머니 완화했다.

실제로 건설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LH가 토지매각물과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입지별로 입찰 방법을 달리하면서 페이퍼컴퍼니와 분양가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LH가 추첨을 진행한 '양주신도시 공동주택용지 4개 블록'의 경우 각각 500~60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LH가 경쟁률을 높이고 유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를 일괄 입찰에 붙이지 않고 며칠-일주일여의 시간차를 두고 입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백대 1의 경쟁률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LH는 입지에 따라 잘 팔릴 만한 곳은 실적을 포함한 경

쟁입찰에 붙이고 더 좋은 역세권이나 산업단지는 최고가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반면 입지가 좋지 않아 유찰의 위험성이 높은 곳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일관성 없는 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이로 인해 오른 택지비가 모두 분양가에 포함되는데 시민단체나 일반 소비자들은 건설사만 원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의 이 같은 행보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커지면서 일부 택지의 매각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결국 이 같은 LH의 고무줄 입찰 방식에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고 일부 증권사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소규모 건설사들의 경우 수익 원에 이르는 입찰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증권사들에서 몇 주 단위의 단기 대출을 받아 입찰보증금을 내고 있다. 문제는 단기 자금으로 빌리는 만큼 수수료가 일반 시중은행 대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는 택지를 사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택지를 사면서 자금 여력이 있는 다른 건설사가 보증금을 대납하고 해당 택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때문에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분양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LH의 토지입찰 제도가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지 오래인데 공기업들은 토지수용권을 행사해 땅 주인으로부터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땅을 사들여 건설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오른다"며 "LH가 토지 매각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입찰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분양가 인하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쿼터백}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유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마트매매수수료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들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베드 통과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1588-8245



## 학군·교통 다 갖춘 '힐스테이트 명륜2차'

현대엔지니어링, 전본주택 열어

현대엔지니어링은 4일 '힐스테이트 명륜 2차'의 전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밝혔다. 이 아파트는 2016년 공급된 힐스테이트 명륜 1차에 이어 부산시 동래구에서 3년 만에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다.

아파트 규모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2층, 8개 동이며 총 874가구다. 100% 일반에게 분양되며 공급되는 면적은 전용 기준으로 84~137㎡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84㎡ 703가구 △109㎡ 163가구 △137㎡ 87가구다.

힐스테이트 명륜 2차는 입지적인 면에서 부산지하철 1호선 명륜역 역세권이면서 평지(平地)다. 부산에서 역세권 입지는 인기가 좋다. 이는 아파트값으로 확인된다. 실제 부산지하철 3개 노선(1·2·3호선)과 동해선 역세권과 비역세권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역세권 아파트값이 비역세권 아파트값보다 평균 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4㎡를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역세권 아파트값이 비역세권 아



힐스테이트 명륜 2차 조감도. 사진제공 현대엔지니어링

파트값 보다 최소 5000만 원 이상 높은 셈이다.

특히 부산 동래구는 부산 내에서도 우수 학군으로 통한다. 120년 전통의 동래고등학교를 비롯해 지난해 부산 소재 고등학교 가운데 '4년제 대학 진학률' 높은 고등학교로 동래구 소재 고등학교가 많이 나왔을 정도다.

한편 전본주택은 부산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 인근(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44-27번지)에 만든다. 입주 예정은 2022년 5월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수사권 조정 부당”... 여론전 나서는 문무일

〈검찰총장〉

### 국민 기본권 침해·경찰 견제 장치 미흡 등 지적 오늘 대검 간부회의 후 이번주 기자회견 열 듯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한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과거와 같이 항명성 사퇴가 아닌 국민 기본권 침해 등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남은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반영되도록 실리를 쫓는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한 뒤 이번 주 후반에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입장을 호소하는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총장은 4일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조만간 상세하게 차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명분을 내세

워 수사권 조정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켜 정치권과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향후 입법 절차에서 검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입힌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가 영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검찰이 영장신청을 기각하면 경찰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검찰의 영장신청에 불복할 경우 국민이 강제수사의 위험에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는 논리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권 조정안의 쟁점 중 하나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불응하면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입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 사임할 경우 후임 검찰총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검찰 내부의 우려를 문 총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언론 등을 통해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차분히 여론을 설득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효진 기자 js62@

# 새 옷 입는 마장동

### 축산시장 도시재생에 320억 투입 2021년 준공... 주차장 대폭 늘려

서울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국비 320억 원이 쓰인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2일 마장동 일대를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국비 120억 원 추가 확보로 총사업비는 기존 200억 원에서 320억 원으로 늘어났다. 시가 신청한 120억 원 중 부지매입비, 설계·감리비 31억 원은 올해 받는다. 나머지는 설계 내용을 반영해 내년도 이후 교부된다.

시는 마장동 도시재생 핵심 시설인 ‘마장정계플랫폼 거점복합시설’ 조성을 2021년 준공 목표로 본격화한다. 이 시설은 마장동 525번지(1704㎡) 내 연면적 4500㎡,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는 재생거점 시설이다. 지하에는 주민과 상인들이 요구해온 주차장을 130면 규모로 마련해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 지상에는 시장환경 개선 시설, 지역 요구를 반영한 생활편의 시설 등이 조성된다.

시는 2017년 2월, 마장축산물시장 일대를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단계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해 4개 사업부문 총 27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61년 형성된 마장축산물시장은 축산물 특화 핵심 산업으로 유기적인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단, 재래식 구조의 시장으로 물류·유통이 혼잡하고 악취·위생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시는 마장축산물시장 산업 재생을 위해 △재래환경개선을 위한 협동조합 조직 지원 △서비스 디자인 개선 △육가공 전문 인력 육성 및 창업지원 △먹거리 중심의 식문화 특화콘텐츠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통신매체 이용〉

# “성범죄자, 신상정보 안 내도 처벌 못해”

### 대법 “신상 등록자 규정 위헌... 처벌 조항도 효력 상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내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3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임 씨는 2015년 9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도 다음 달 26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43조 1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50조 3항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2016년 3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규정한 43조 1항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현재의 결정에 따라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현재의 위헌 결정 기속력은 42조 1항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문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지 처벌 조항까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현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벌 조항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효진 기자 js62@



한시 짓는 선비들

제18회 대한민국 서당문화한마당이 열린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한시를 짓고 있다. 뉴시스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 치마 길이 짧아지면 경트럭 잘 팔린다?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 자동차 '판매 속설' 팩트체크

자동차 업계에는 다양한 속설이 존재한다. 몇몇 판매 지표와 현상, 여론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사례들인데, 세심한 분석이 뒤따르면서 속설은 때때로 정설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시장 상황들이 다시 맞아떨어지면 정설은 마치 이론으로 급부상하기도 한다. 자동차 업계에 전해지는 몇몇 속설을 알아보자.

◇경기 불황일수록 패션 트렌드 달라져 = 1971년 미국의 경제학자 M. 마브리는 '뉴욕의 경제상황과 여성 치마길이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그는 "불황일 때 여성들이 원단이 적게 들어간, 가격이 싼 미니 스커트를 선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치마길이 이론(Skirt-length Theory)'이다.

이후 특정 소비재와 경기상황의 연관성에 대한 주장이 하나둘 늘어났다. 동시에 '경기침체=미니스커트 유행'이라는 등식이 상관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물론 경기불황에 따른 패션업계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반대 분석도 존재한다. 나아가 불황기에 남성의 관심을 끌기 위한 '여성의 원초적인 심리'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무조건 속설에 불과하다며 치부하기도 어렵다. 적어도 국내에서는 이런 속설 일부가 맞아떨어지기도 했다.

◇미니스커트 유행하면 경트럭이 대박 = 1998년 IMF 구제금융과 2008년 리먼쇼크는 대한민국을 극심한 경기침체로 몰아넣었다. 완성차 메이커는 이 시기에 저마다 마른 수건을 짜내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반면 이때마다 대박 난 국산차도 있다. 한국지엠(GM)의 경트럭 다마스라 보았다.

1997년 이후 연간 판매대수 기준, 다마스라보는 IMF 한파가 가장 극심했던 1998년에 역대 최대 판매고(5365대)를 올렸다. 불황이 극심하던 시절, 대규모 정리해고와 실직자가 증가했다. 이들이 생계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으로 전환하면서 경트럭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후 온 나라가 2002 한일 월드컵으로 경기회복에 들어설 무렵 사정은 또 달라졌다. 소비 심리 활성화와 긍정적 경기 전망



불황이 깊을수록 경트럭 판매는 호황을 누린다. 1997년 IMF 구제금융, 2008년 리먼쇼크 때 다마스라보 판매가 급증했다. 사진은 다마스라보와 영화 '7년 만의 외출' 스틸컷 합성. 사진제공 한국지엠

### 1998년 IMF·2008년 금융위기 다마스·라보 '최대 판매' 기록 국내 생계형 자영업 확대 영향

### 경기 침체기 고급차도 잘 팔려 올 글로벌 차 성장률 1% 미만 고급차 시장 4% 넘어설 듯



불황일수록 고급차 판매도 늘어난다. 2012~2015년 글로벌 고급차 시장은 8.7% 성장했다. 이 무렵 국내 준대형차 판매 역시 중형차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4월까지 6개월 연속 내수판매 베스트셀링카에 오른 현대차 그랜저G. 사진제공 현대차

이 이어질 때 다마스라보의 연간 판매량은 1997년 이후 최악인 2306대까지 고꾸라졌다. 경기가 좋아졌는데 오히려 판매는 하락한 셈이다.

이런 함수관계는 2008년 리먼쇼크 때 또다시 증명됐다.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 여파가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 퍼지기 시작했다.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환율과 국제유가가 치솟던 시절, 다마스라보의 연간 판매는 2000년대 들어 최대치인 4413대를 기록했다.

M. 마브리의 '치마길이 이론'에 대한 반대 주장과 비논리적 이론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경기침체=경트럭 대박'이라는 등식은 성립된 셈이다.

◇불황일수록 고급차 강세 = 물론 불황일수록 고급차가 잘 팔린다는 주장도 여전

히 숫자들이 증명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전 세계 고급차 시장은 2008년 리먼쇼크 이후 오히려 고성장을 시작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율은 연평균 8.7%로 일반차보다 5.7%포인트나 높다.

2018년까지도 평균 5% 안팎의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일반차의 증가세를 앞지르고 있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1% 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급차 시장의 성장세는 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역시 다르지 않다. 지난해 국산 준대형 승용차 판매는 전년 대비 3.86% 증가했다. 현대차의 준대형 세단 그랜저는 4월 판매에서 1만 대를 돌파(1만135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베스트셀링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제네시스의 4월 판매는 G70 판매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1% 증가했다. 불황일수록 기쁨값이 적게 드는 소형차 판매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 준대형차로 차 업계의 중심이 이동하는 셈이다.

◇고급차일수록 고객만족도는 하위권 = 북미 소비자 단체가 발표하는 고객만족도에는 다양한 지표가 포함돼 있다. 구입 초

기 고장 건수와 불만 건수 등이 지표의 기준이다.

이때마다 흔히 고급차 브랜드는 상위권에서 밀려나기 일쑤다. 늘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토요타와 혼다 등 대중차 브랜드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다. 왜일까?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마이너리티 소비의 특성'이라고 분석한다. 많은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은 소비재에 투자하고 구입을 했다면 그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강조하게 기본적인 소비심리다. 스스로 "만족도가 높다"며 자기위안하는 경우다. '불만족=나의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많이 팔린 현대차보다, 상대적으로 판매가 적은 르노삼성차 고객의 고객 만족도가 높다.

고급차에 대한 높은 기대치 역시 이런 만족도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값비싼 고급차를 무리해서 구매했는데 작은 결함이라도 드러나면 만족도는 그 이상으로 하락한다.

거꾸로 큰 기대 없이 구입한 중저가 모델이 예상외로 좋은 품질을 지녔다면 만족도는 크게 올라간다.

현대차의 최고봉이었던 에쿠스의 고객 만족도가 가장 떨어진 반면, 1000cc 경차의 품질 만족도가 높았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 경차, 이제 신학기에 많이 찾지 않아요

### 국산 크로스오버 모델 늘면서 특정 계절·차종 '고리' 약해져 고급세단 인사철 호재도 엇갈

1980년대 말, 우리나라에도 국민차(경차)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첫 사업권은 당시 대우조선이 따냈다. 대우차와 별도로 경남 창원엔 '대우국민차'를 설립, 800cc(당시 기준) 경차를 개발해 내놨다. 일본 스즈키 알토의 3세대가 베이스 모델이었다.

그렇게 대우국민차 티코가 등장했다. 서울올림픽 직후 시작한 경기침체 탓에 경차는 불타나게 팔렸다. 현대차와 기아

차 역시 서둘러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경차 3파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회초년생 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경차 붐도 일어났다. 대중교통보다 유지비가 싸다는 마케팅에 대학생 자가용 통학 문화도 생겼다.

자연스레 경차는 대학 신입생을 노린 마케팅에 열중하기도 했다. 이른바 캠퍼스 마케팅이었다. 자연스레 신학기가 시작하는 2~3월은 경차 성수기로 불렸다.

반면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이런 정설은 사라졌다.

"특정 차종은 특정 기간에 잘 팔린다"는 속설이 이제 희미해진 것.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미니밴이 가장 잘 팔린다거

나, 연말 기업체 승진 인사 때 준대형 세단이 많이 팔린다는 것도 실제 증명되기 어려웠다.

본지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경차 2종과 미니밴, 준대형 세단 3종의 최근 5년간 월별 판매 추이를 전수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예컨대 최근 5년 동안(2019년은 4월까지 반영) 기아차 모닝은 4분기에 가장 많이 팔렸다. 쉐보레 스파크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아차 카니발 역시 가정의 달 5월보다 추석 연휴를 앞둔 7~8월 판매가 많았다. 연휴 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는 점도 구매욕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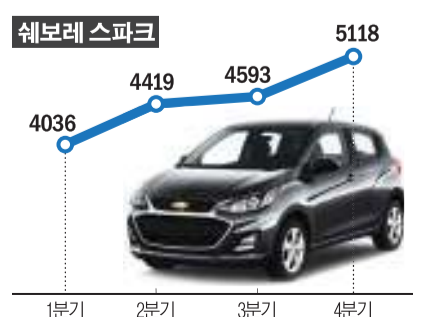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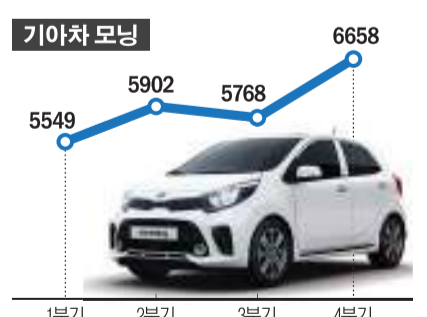
고급 준대형 세단 역시 기업체의 연말 승진 인사에 맞춰 법인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풀모델 체인지 시기에 내수 판매가 증가했고, 대대적인 할인 마케팅이 성행하는 시기에 판매가 급증했다.

특정 기간에 특정 차종이 잘 팔린다는 정설이 희석된 배경에는 1가구 2차량 시대가 확산됐고, 차종별 특징이 뒤섞인 이른바 '크로스오버' 모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임원 처우를 줄이거나 임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기업체의 긴축재정이 본격화된 것도 이런 자동차 업계의 마케팅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 경차 분기별 평균 판매량 (단위: 대, 최근 5년 기준, 2019년도는 4월까지 반영)





# “헤드헌터는 기업과 인재의 가교역할”



신중진 피플케어그룹 대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그 군주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거든 그가 기용하는 사람을 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핵심 인재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인재를 찾아오는 사람에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그룹들도 있다. 인사는 그만큼 어렵다. 하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엔 사람을 잘 쓰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기업들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삼성이나 IBM이 세계 최고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재’ (人材)를 찾는 덕분이라고 강조하는 이가 있다. ‘인재전쟁시대’ 속에선 좋은 인재를 고용하는 회사가 번창하는데, 헤드헌터가 기업들이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달 1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피플케어 프로페셔널’에서 만난 신중진 대표는 “회사가 공고를 한다고 해서 인재들이 몰리는 것은 아니다”며 “채용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후보자의 자질을 발견해서 기업과 연결해주는 게 헤드헌터의 일”이라고 말했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헤드헌터 일을 잘할 수 있어요. 헤드헌터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헤드헌터들에게 항상 이것을 강조합니다.”

신 대표는 ‘피플케어 그룹’을 창업해 15년간 7000여 명의 채용을 성공시킨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기업은 ‘좋은 인재’를, 후보자는 ‘좋은 회사’를 찾는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스스로의 문제점을 알아야 하고 후보자는 자신의 재능을 찾아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헤드헌터라는 게 신 대표의 ‘자부심’이다.

“국내 700개 이상의 헤드헌팅 회사가운데 10위권 안의 회사만 두 개를 설립했다”는 신 대표. 그는 이투데이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킬 핵심 인재를 찾는 기업과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후보자, 그리고 기업과 사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

요즘 구직난 속 ‘인재전쟁시대’ 좋은 인재 고용해야 회사 번창

‘인성·소통능력’ 인재 덕목이지만 의지 부족한 사람들 너무 많아

구직자 자질 발견, 기업과 연결 보이지 않는 손 ‘전문 헤드헌터’ 정직과 열정·리더십·겸손 갖추고 사람 도와준다는 책임감 가져야



기를 원하는 헤드헌터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구직난이 심각하다. 후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업은 적극적인 지원 의사가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요즘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많다. 이력서를 내놓고 면접을 보러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젊은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다. 중년 임원급 채용 과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어떤 기업도 지원 의지가 약한 사람을 선호하지 않는다. 비유를 하나 들자면 헌센 사자도 작은 토끼 한 마리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질주하는 것이다. 회사 지원할 때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질주해야 한다. 목표가 정



신중진 대표는 2000년 헤드헌터 회사인 피플케어를 설립했다. 신 대표는 직접 현장에서 뛰기보다 헤드헌터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 대표는 인재로 평가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로 인성을 꼽았다. 소통능력 역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억해야 할 인재의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해지면 전력을 다해야 합격한다. 능력이 괜찮아도 의지가 부족한 사람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이를 뽑는다. 근무도 잘하고 조기 퇴사를 하지도 않을 테니까.”

-또 다른 팁이 있나.

“네 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다지고 임해야 한다. 둘째,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한다.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도 소홀히 하는 이들이 많다. 임원급들에게도 이같이 조언한다.”

-인재들도 기업을 찾는 기준이 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복지, 연봉 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직업을 찾는 데 동기부여 요소들이 있다. 보통 ‘C.L.A.M.S’라고 하는데 C는

‘Career development’의 약자이다. 자신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직장인가를 뜻한다. L은 ‘위치’(Location)인데 ‘우간다라도 가겠다’, ‘제주도라도 가겠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울 외에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다. 근무 장소가 중요한 이들이다. A는 ‘승진’(Advancement)의 가능성이다. 50대에도 부장으로 끝나면 속상하지 않겠다. M은 ‘돈’(Money), S는 ‘안정성’(Security)이다.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을 순위 매기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다. 1순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적합한 회사가 달라진다. 연봉도 달라진다. 어떤 요소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즘은 S를 중요시하는 분위기다.”

-헤드헌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현장을 뛰지는 않고 헤드헌터들을 지원하고 있다. 직접 후보자를 찾는 것까지 다 하면 헤드헌터와 경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좋은 고객사를 다 가질 게 될 것 아닌가. (웃음) 최고경영자(CEO)는 꽃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고 꽃밭을 가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터를 만들고 물을 주고 김을 매고 불필요한 잡초를 뽑아내면서 꽃밭을 가꾸는 것이다. 헤드헌터들이 더 꽃을 피울 수 있게 말이다.”

-전문 헤드헌터가 되기 위해선 어떤 덕목이 필요한가.

“정직과 성실, 지적능력 그리고 열정, 리더십, 겸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비서나 엔지니어들에게는 리더십이 필요 없다. 하지만 한 사업을 책임지는 이들에겐 필요한 덕목이다. 헤드헌터도 마찬가지이다. 정보기술(IT) 전문 헤드헌터의 경우, 새로운 분야가 될 새 없이 나오고 빠르게 바뀌는 IT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으면, IT 직무 헤드헌팅을 진행하기 어렵다. 이력서를 봐도 용어 자체를 모를 테고 사회 경력도 있어야 한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헤드헌팅을 하기 어렵다. 조직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헤드헌팅 기업 대표가 말하는 좋은 인재란?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 결국은 조직이지 않는가. 함께 일을 도모하고, 뜻을 같이 해야 하는데, 실력 못지않게 인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면접 전에 화장실 가서 본인을 살펴보자. 아니, 지하철 역부터. (웃음) 모든 순간이 평가 기준이다. 두 번째는 업적과 성과이다. 이것 역시 수치로 나타난다. 남이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인재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력서 제일 앞부분에 쓰이는 핵심 역량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싶다. 조직은 함께 힘을 모아서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억해야 할 인재의 덕목이다.”

김소희 기자 ksh@

사진 / 신태현 기자 holjjak@



## “사는 곳은 달라도 꿈은 같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사는 미나도 한국에 사는 영민이도 ‘선생님’이라는 같은 꿈을 꾸니다

서로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적은 편지에 ‘희망’을 담아 전합니다





# 해외에서도 데이터 로밍을 원하는 대로!

KT 5G 슈퍼플랜으로  
해외 185개국에서도 데이터 사용을 마음껏 즐기세요

\* 베이직/스페셜 최대 100Kbps, 프리미엄 최대 3Mbps 속도



국내에선 5G데이터가 기간 제한 없이 완전 무제한  
해외에선 데이터 로밍을 원하는대로

**kt 5G 슈퍼플랜**

**[ 베이직 / 스페셜 요금제 ]**

- 해외 특/메신저 무제한
- 국내 완전무제한

**[ 프리미엄 요금제 ]**

- 해외 무제한
- 국내 완전무제한

당신의 초능력 **kt 5G**



# 17년 만에 민간 출신...강호 보험개발원장 취임 “인슈어테크 플랫폼으로 혁신 선도”

대신생명·대한생명 등 거쳐  
3년간 보험연구원장 맡기도  
“보험사가 빅데이터 이용하도록  
수요자 중심 통계 시스템 구축”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지원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강호(사진) 보험개발원 원장이 3일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험개발원이 인슈어테크(InsurTech)의 핵심 플랫폼으로 보험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17년 만에 민간 출신이다. 보험개발원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출신들의 자리로 여겨졌다. 실제 보험개발원장은 역대 11대 원장(1989~2016년) 가운데 5대 박성욱 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관(官) 출신의 인사가 차지했다. 직전 제11대 성대규 전 원장 역시 제13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보험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강 원장은 보험연구원과 보험개발원에서 수장을 차례로 맡은 첫 인

물이다. 겸손한 리더십으로 구성원들 모두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온 것이 토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장은 이날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견인 △고객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확실성 해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혁신을 구체적인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험사가 언제든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수요자 중심의 통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ARK시스템과 같이 보

험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준시스템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조적차 보험·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개발원의 새 미래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현재 개발 중인 AIRS나 AOS α와 같이 핵심 업무를 첨단 ICT기술과 결합해 보험사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용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조지아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그는 대신생명(푸른현대생명 전신) 출신으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상품고객실장과 전략기획실장 등을 지냈다. 이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보험개발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부터는 3년간 보험연구원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김세영, LPGA 메디힐 챔피언십 연장승부 끝 우승

김세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연장 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김세영은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일리시티의레이크 머세드골프클럽(파72·650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메디힐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2개, 보기 3개, 더블 보기 1개를 묶어 3오버파를 쳤지만,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로 이정은, 브론체로(잉글랜드)와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나섰다.

연장 첫 홀에서 버디를 기록한 김세영은 두 선수를 제치고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우승 상금은 27만 달러(약 3억1000만 원)다.

김세영은 지난해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 이후 10개월 만에 트로피를 추가하며 통산 8승째를 거뒀다. 김세



김세영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후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시티(미국)=AP/뉴시스

영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올해 LPGA 투어에서 11개 대회 중 6승을 합작했다. 이재명 기자 lly0403@

## 홍남기 부총리 “아시아 경제복원력 확충해야”

ADB 차기 연차총회 의장 선출

내년 5월 2~5일 인천 송도 개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기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4일 피지에서 열린 제52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차기(제53차) 연차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홍 부총리는 ‘아시아 2020: 혁신, 포용 그리고 통합’이라는 내년 연차총회 주제를 소개했다. 내년 연차총회는 5월 2~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홍 부총리는 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아시아 각국이 경제복원력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유의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아이야즈 사예드 카유 피지 경제부장관으로부터 차기 개최국 비통을 인계받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내 통합을 위해서는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대응이 필수적이며 한국도 신티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역내 통합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기아차, 대학생 ‘빅MT버스’ 운영

기아자동차는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아 빅(VIK) MT 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기아 빅 MT 버스는 전국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기아차 공식 블로그 ‘플레이기아(PLAY KIA)’를 통해 사전과 함께 원하는 일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달 선정되는 1팀은 1박 2일간 45인승 버스(운전기사 포함)를 제공받게 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롯데마트, 하현우 ‘나눔음원’ 제작

롯데마트가 ‘드림 캐처스’의 꿈나무들이 고객과 함께 소통하고 나눔 가치 공감을 위해 가수 국카스텐 하현우(사진)와 함께 나눔 음원을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음원은 드림캐처스 꿈나무들이 사회공헌 취지로 재능기부에 참여한 국카스텐 하현우 씨와 함께 작업한 ‘DREAM’이란 곡이다. ‘DREAM’이란 곡은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됐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방문 중인 박원순(왼쪽 세번째) 서울시장은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8200부대’와 ‘탈피오트’ 출신 기업가들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 서울시

## 박원순 시장, 이스라엘 8200부대·탈피오트 출신 기업인 만나 “軍이 창업인재 육성...서울시 벤치마킹해볼 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중동·유럽 순방 중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서울의 창업 생태계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박 시장은 5일(현지시간) 오후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군 ‘8200부대’와 ‘탈피오트’ 출신 기업인 2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계적인 창업 강국인 이스라엘은 특수부대 전역자가 IT·기술 창업을 선도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같은 징병제 국가 한국에 이식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박 시장은 “이스라엘은 우수 인력이 군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버 보안 등 기술을 더 훈련한 뒤 창업을 한다”며 “방위산업 강

화뿐 아니라 나스닥 상장 기업까지 탄생하는 이런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정부와 함께 군 복무 청년들이 스스로 재능을 키우고 제대 후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는 일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귀국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8200부대는 사이버전에 특화된 정보부대이다. 히브리어로 ‘최고 중 최고’란 뜻의 탈피오트는 과학·기술 장교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들 부대 출신은 정보·통신·과학 등 전문지식을 실전에서 습득한다.

김진희 기자 jh6945@

## ‘5월 엔지니어상’ 김종준 현대중 연구원·정광량 동양구조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엔지니어상 2019년 5월 수상자로 김종준 현대중공업 책임연구원과 정광량 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종준(왼쪽 사진) 책임연구원은 극저온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용 초대형 알루미늄 재질의 구형 탱크 제작 자동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상용화해 국내 조선업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책임연구원은 국내 조선업 상황에 최적화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해 3차원 곡면상에서 용접 및 가공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100%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함으로써 조선 자동화기술의 수준을 높였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정광량(오른쪽) 대표는 초고층 건축물과 대공간 건축물에 핵심기술인 레티스 셸 구조의 검증과 실용화



를 통한 구조설계기술의 국산화로 우리나라 건축설계 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정 대표는 기존 접합부의 분석을 통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형상을 결정하고, 다양한 현장적용을 통한 검증 등을 통해 해외 기술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접합상세 개발로 레티스 셸 구조설계의 독자적 국산화에 성공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외교안보정책관 권원직
- ◆행정안전부 ◇국장급 임용 △감사관 김영현 ◇과장급 전출입 △대통령비서실 천준호 △지방규제혁신과장 김경태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동북아통상과장 한철희
- ◆환경부 ◇국장급 전보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상훈
-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파견 △운영지원과장 김혜정 △수산정책과장 최현

- 호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박용환
- ◆인사혁신처 ◇국장급 임용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부장 이희섭
- ◆한국재정정보원 △상임이사 윤재영
-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연구단장 김솔기 △고전압평가본부장 이동준 △분산전력시스템연구센터장 전진홍 △기술사업화실장 김세광 △광주본부추진팀장 최성중
- ◆우리종합금융 ◇신규선임 △기업금융본부 상무대우 신영현

-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장 강주현
-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국장 이재강 △ 해설위원실장 이현남 △ 시사제작국장 홍사훈 △ 통합뉴스룸[정치국제] 통일·외교부장 원종진 △ 시사제작국 시사제작2부장 하준수
- ◆조선영상비전 △발령 △영상본부 영상취재1부장 이재익 △영상본부 영상취재2부장 조상범 △부장 승진 △제작본부 방송기술부장 채일석 △부장대우 승진 △영상본부 영상취재2부 조상범 △영상본부 영상취재2부 안재호 △영상본부 영상기획부 신철

## 부음

- ▲박동현 씨 별세, 박병욱(크롭스 주식회사 상무)·병호(비엠아이 부장)·군순(군례·군회·병회·병에 씨 부친상, 김남유(당진 중앙장례식장 대표)·김주찬(대전 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이명휘(청구요양원 대표)·박상철(디젠스 주식회사 이사) 씨 장인상, 김하늬(이투데이 정치경제부 기자) 씨 외조부상 = 5일, 충남 아산 배방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041-544-1500
- ▲김상민(전 한국여류서예가협회 부이

- 시장) 씨 별세, 홍일식(전 고려대 총장) 씨 부인상, 홍혜정(서울 중구보건소장)·성걸(국민대행정학과 교수)·성업(쑤쑤프란 회장)·성구(경북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씨 모친상 = 6일, 서울 고려대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9일 오전 8시, 02-927-4404
- ▲박종임 씨 별세, 문영목(전 농어촌공사 부장)·김일·영환(일성 대표)·영순·숙란·의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업1국장)·의숙 씨 모친상, 김선희 씨 시모상 = 4일,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8일 오전 7시, 053-654-4440



추창근 칼럼



논설실장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되는 게 뭐 있나

가장 나쁜 것은 반성이 없다는 점이다. 경제가 추락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도, 청와대는 “너희는 떠들여라. 나는 그대로 간다”는 식이다. 자신들은 무오류(無誤謬)라는 근거 없는 아집(我執)이 한심하고 위험하다. 실패의 누적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살림이 고달파지면서 국민의 실망만 쌓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났다. 전임 대통령 탄핵의 국가적 불행은 딛고 성립된 정권이다. 문 대통령의 2017년 5월 10일 취임사가 새삼스럽다. ‘통합과 공존’을 첫머리에 두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강조했다. “일자리부터 챙기고, 지역·계층·세대 갈등을 해소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권의 시대정신을 정의(正義)로 압축했다. 그 초심(初心)에 거는 기대는 컸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했다. 엄청난 고용난 타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지금껏 상황판의 쓸모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 고용은 여전히 참사 수준이다. 매년 30만~40만 명씩 늘던 취업자는 작년 증가폭이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늘고 있지만 쪽정이 수치다. 민간의 질 좋은 제조업 고용은 작년 4월 이래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세금 쏟아부어 억지로 만든 알바성 일자리만 증가

했다. 경제활동의 허리인 30~40대 고용은 2017년 10월부터 18개월째 마이너스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고다.

경제정책의 간판은 소득주도성장이다. 근로자에게 돈을 더 주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믿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2년간 29.1%나 한꺼번에 인상했다. 임금을 올려 소비를 진작하고 기업투자자와 생산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킨다는 주장인데, 그럴듯하지만 비주류 경제학의 검증되지 않은 가설(假說)이다. 그런 쉬운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누가 못했겠는가.

소득주도성장론은 곧 반(反)기업 정책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도, 법인세 인상 등을 밀어붙였다.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은 경영권 위협을 부추기고 기업가정신을 꺾는다. 기득권에 밀린 신사업 규제도 곳곳에 널렸다. 선진국들과 거꾸로 간 역주행이다. 그나마추어리즘의 착각과 무모함이 가져온 실패는 참담하다.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일자리와 자영

업은 붕괴되고, 소득분배 악화로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업들은 이 땅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며 해외로 나간다. 수출과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생산·소비는 바닥이며, 고용시장은 마비 상태다. 올해 1분기 -0.3%의 역성장 쇼크는 필연적 결과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 곧 회복될 것”이라며 만소리다. 이제 혁신성장을 내세우지만, 전제조건인 규제혁파는 제자리다. 규제만 풀어주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혁신한다.

원자력은 악(惡)이라는 환경론자들의 엉터리 주술(呪術)에 빠진 탈(脫)원전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무지(無知)와 오기로 탈원전의 대못을 박았다. 수십 년의 축적으로 세계가 첫손 꼽는 한국 원전 건설기술, 안전운영 능력, 산업 생태계는 뿌리채 뽑히고,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 흔들리고 있다. 최고의 기술인력들은 중국으로 팔려가고 있다.

기대했던 남북관계 개선도 이뤄진 게 없다. 문 대통령이 올인한 ‘한반도 운전자

론’으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건 획기적이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비핵화는 첫걸음도 못 뚫고, 문 대통령의 중재는 북으로부터 ‘오지랖’이란 모욕까지 당했다. 핵을 포기할 뜻이 없는 김정은은 다시 미사일 도발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안보의 축인 미국과의 동맹은 뼈격거리는 소리만 커진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가장 나쁜 것은 반성이 없다는 점이다. 경제가 추락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도, 청와대는 “너희는 떠들여라. 나는 그대로 간다”는 식이다. 자신들은 무오류(無誤謬)라는 근거 없는 아집(我執)이 한심하고 위험하다. 실패의 누적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살림이 고달파지면서 국민의 실망만 쌓인다. 문 대통령 취임 초 80%를 넘었던 지지율이 지금 40%대로 떨어졌다. 무너지는 건 순간이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남은 3년 잘못된 것을 되돌릴 희망이 있기는 한가.



원미숙의 참견

동대부산파위반도체렵 초빙교수

과학기술,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는 국가경쟁력 확보의 근간이 되며, 지역의 차별화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간 경쟁이 지역·도시 간 경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지역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2018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도 국가경쟁력과 과학 및 기술 경쟁력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과학기

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0년부터 정부에 의해 시행된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1~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성과로 지역 R&D 투자 확대,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지원단 및 지방정부 소속 R&D 기획·관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 등 지방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강화 및 R&D 인프라 확충 등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자체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 혁신을 직접 목적으로 한 과학기술 투자는 2008년 이후 정체 상태에 있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R&D 투자시스템으로 인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사업에 단순 매칭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전략산업 분야와의 투자 연계성 부족 등 전략적 지역 혁신 창출 역량은 아직

도 미흡한 상태다.

또한, 초연결·초지능이 가능해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산업구조 변화 및 생산·판매·홍보 등에 있어 지리적 제약을 감소시켰으며,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력 부족 및 노동집약적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신성장동력의 부재는 새로운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와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및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로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이루는 것이 5차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과학기술 활동으로 17개 시·도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과학진흥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작년 9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신(新)지

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마련하고 4개의 시범지역(부산, 울산, 충남, 전북)이 이를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이 확보되어야 하며, R&D 전담 지원 조직 확보와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로, 지역 특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 투자계획을 지역이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 지방정부가 지방분권에 따른 자율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R&D 사업에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예산, 즉 포괄보조금이 중앙정부로부터 주어져야 한다. 문제는 지역 혁신에 투자되고 있는 R&D 자금은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기획·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방정부에 이 예산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민·관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포괄보조금 제도의 실질적 확보가 이번 5차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에는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로버트 브라우닝 명언 “무지는 순진이 아니라 죄악이다.”

영국 빅토리아조를 대표하는 시인.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독백하는 형식인 ‘리피리피 신부’, ‘안드레아 텔 사르토’, 2만 행이 넘는 대작 ‘반지와 책’을 남겼다. 그의 시는 인간의 강렬한 정열을 함자게, 그리고 극적으로 노래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의 시는 깊이 생각해야 하고 또 어려웠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야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12-1889.

☆ 고사성어 / 속맥불변(藪麥不辨) 한눈에 봐도 전혀 다른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할 정도로 어리석다는 뜻. 진(晉)나라의 도공(悼公)이 형을 제치고 열네 살에 왕위에 올랐다. 형이 우둔하여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해 왕으로 세울 수 없다면 서 사람들이 속맥이라고 칭했다. 세상물정 모른다는 ‘속맥’이란 말도 여기서 유래했다. 출전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 시사상식 / 탕진잼 흥청망청 다 써서 없앤다는 뜻의 ‘탕진’과 재미를 뜻하는 ‘잼’을 합친 신조어. 불황과 취업난으로 수입이 적은 젊은 세대가 푼 돈으로 사용 가능한 돈을 모두 쓰는 것을 말하며, 스트레스 해소 방식으로 여겨진다. 품목은 주로 볼펜 같은 문구류, 생활용품, 인형 등 작고 저렴한 물건이나 캐릭터 스티커, 뷰티 드럭 스토어, 천원 송 등이 인기다.

☆ 우리말 유래 / 비지땀 힘든 일을 할 때 쏟아지는 땀. 비지를 만들기 위해 콩을 갈아 형질에 써서 짤 때 나오는 콩물처럼 많이 흘리는 땀이라는 뜻으로 만든 말이다.

☆ 유머 / 바라던 인생 아들이 “아버지, 이제 저도 제 인생 찾아 떠납니다”라며 하직 인사를 하자 아버지가 “어떤 인생이냐?”고 물었다.

“돈 많이 벌어 여행도 다니고 예쁜 여자 만나 즐겁게 사는 겁니다. 막지 마세요.” 말을 마친 아들이 일어서자 아버지가 따라 일어서며 한 말. “양장서라, 같이 가자!”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비적정’ 코스닥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는 46곳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30곳에서 50%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16년 21곳으로 3년간 증가세다. 감사보고서 비적정 기업도 늘었다. 지난해 12월 결산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을 받은 기업은 4곳, 의견 거절은 24곳이다. 전년도 17개사에서 크게 증가했다.

코스닥 기업이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감사보고서 비적정이 2년 연속 이어지면 상장 폐지에 이를 수 있다.

최근 코스닥 기업에 대한 ‘비적정’ 의견이 크게 늘어난 것은 회계 및 감사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진 탓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기사수첩 이주혜 자본시장2부/winjh@

코스닥 낮은 문턱이 부실 키울라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으로 감사가 간간해졌다는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증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회계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코스닥 기업 자체가 부실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한 회계 업계 관계자는 “상장 문턱이 낮아지면서

부실한 코스닥 기업이 많아진 영향”이라면서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을 갖출 만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지적하는 ‘투지주의 환기 종목’ 증가도 이를 방증한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추고 있다. 국내 자

본시장 여건상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기술특례 상장, 테슬라 요건, 성장성 특례 등을 도입했고 최근에도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코스닥 상장 문턱을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술기업 특례 상장 활성화, 코스닥 상장 예정 법인의 회계감리 부담 완화, 코넥스-코스닥 신속 이전 상장제도 등을 제시했다.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혁신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낮은 문턱이 자본시장의 부실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허울뿐인 상장사가 많아질수록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시장의 신뢰는 작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코스트코 창업자의 눈물

## 데스크칼럼

배수경  
국제경제부장



내가 어릴 때 서울에 살던 우리 가족은 외가가 있는 경기도 일산으로 이사를 했다. 지금이야 대로가 뚫리고 아파트가 뻗뻗하게 들어찬 신도시이지만 그때만 해도 일산은 첩첩이 산중에 눈두렁 발두렁, 그야말로 전원 내음 물씬 나는 시골이었다.

이사하고 얼마 뒤 나는 동네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동들 무렵이면 무시무시하게 큰 장갑차들의 행렬이 동네 어귀에 나타나 지축을 울렸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그 광경을 보려고 졸린 눈을 비비며 뛰어났다. 어디에서 주워들었는지 아이들이 “헬로, 헬로” 하고 따라가면, 장갑차 뚜껑이 열리면서 미제 초콜릿이며 초코 우유며 딸기 우유가 계속 튀어나왔다. “미제다, 미제!”

가끔 미군이 얼굴을 내밀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 아이들은 다른 얼굴 생김새 때문인지 그대로 얼어붙었다. ‘거대하고 무시무시하지만 풍요롭고 여유로운’. 그게 내가 처음 접한 미국이었다.

그때의 기억이 왜 갑자기 떠올랐나 하면 3일 성수동에 문을 연 미국 커피 브랜드 ‘블루보틀’ 때문이다. 오픈 당일 새벽부터 수백 명이 몰려 대기 행렬을 만들고, 심지어 첫 손님은 자정부터 줄을 섰다고 하니, 그 미제 입소문 한 번 대단하다 싶었다. 몇 년 전 ‘쉐이크버거(셰이크버거)’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도 그렇게 난리통이었다던지.

이런 한국인의 미제 사랑을 일지감치 알아본 사업가가 있다. 코스트코 창업자 제임스 시네갈이다. 그는 2011년 코스트코 최고경영자(CEO) 은퇴를 앞두고 가

진 한 인터뷰에서 코스트코에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한국 서울을 지목했다. 그는 “서울은 정말 엄청나다”며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고 했다. 서울 인구가 1400만~1500만 명인데, 이 정도 인구 밀도에서 서울만큼의 매출을 내는 데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언급한 게 “한국인들은 미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제품군을 현지화하는데, 코스트코에서는 판매하는 물건의 3분의 1이 미제라고 한다.

한국에서 겨우 15개 매장을 운영 중인 코스트코의 매출 성장세는 시네갈 창업자가 눈물을 쏟을 만도 하다. 통계 전문 사이트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2010년 1조 5800억 원이던 코스트코의 매출은 2018년에는 3조 9200억 원으로, 8년 새 2배 이상 뛰었다. 포춘에 따르면 코스트코 단일 매장 매출에서 양재동은 세계 최고다.

우리나라 이마트의 지난해 매출이 17조 491억 원이었다. 매장 수는 코스트코의 10배가 넘는 158개.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 이마트가 1993년 창동에 1호 매장을 연 이후 30년간 아무리 공격적으로 영

업을 했어도 미제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코스트코의 행보는 배은망덕 그 자체다. 우리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제시한 상생안 절차를 무시하고 얼마 전 하남점 개장을 강행했다. 정부가 미리 ‘영업 일시 정지’를 권고했지만 어겨 봐야 과태료 5000만 원이 전부이니 그냥 개점을 밀어붙인 것이다. 소비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주변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거세다.

‘커피계의 애플’로 불리는 블루보틀이 일본 다음 해외 시장으로 한국을 고른 것도 한국인의 남다른 미제 사랑을 간파해서일 거다. 미국과 일본 블루보틀 매장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관광 명소가 된 지 오래다. 앞으로는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불리는 성수동에 터를 잡고, 관광 명소로서가 아니라 일상 속으로 파고들겠다는 것이다.

다 좋다. 단지, 한국인의 미제에 대한 로열티를 호구로 전락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애플, 스타벅스, 코스트코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이다. 처음 들어올 때는 세상에 없는 상냥한 얼굴을 하고, 잇속을 쥘 길 때는 세상 냉정한.

우리고 미제에 무조건 열광할 게 아니라 부당에는 강하게 항의하며 우리의 소비 파워를 보여줄 줄도 알았으면 한다. 씹씹이에 맞는 대접을 받자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블루보틀이 미국에서 탄생한 건 맞지만, 지금은 ‘네스프레소’로 유명한 스위스 네슬레 산하 브랜드다. 미제가 아니다. sue6870@

##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산업부 차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분기점이 된 것은 맞는데, 사실 제품 전략이 많이 늦었던 것도 있었어요.”

중국 시장 부진을 말하던 기아차 고위 임원은 자조적인 말투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요즘처럼 SUV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기 전부터, 적절한 제품들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요즘 차 업계에서는 SUV가 효자입니다. 틈새 모델로 취급받던 SUV가 이제 주류로 우뚝 선 셈이지요. 당장 내수만 해도 그렇습니다. 완성차 5사 가운데 늘 꼴찌였던 SUV 전문 메이커 쌍용차가 판매 3위에 올라선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대형 SUV 시장이 그렇습니다. 수입차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성이 사라진 데다, 국산차의 품질과 내구성이 이들에 버금가기 시작하면서 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수익성도 좋아졌습니다. 현대차 1분기 판매는 작년보다 줄었는데도

수익은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대형 SUV 및 고급차 판매가 늘어난 효과”라는 게 현대차의 분석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대기아차는 “더 다양한 SUV를 개발해 시장에 대응하겠다”는 전략까지 내놨습니다.

자동차업계의 이런 모습은 흡사 1990년대 미국과 닮아 있습니다. 값싼 기름 값 덕에 북미에서는 SUV와 픽업트럭이 불타나게 팔렸습니다. 포드와 GM, 크라이슬러 등 이른바 미국 ‘빅3’는 철옹성 같은 아성을 쌓기 시작했지요.

특히 포드는 승용차를 개발하던 최고의 ‘브레인’ 들을 대거 SUV 개발에 투입했습니다. 판매 전략도 SUV와 픽업에 맞췄습니다. 그러는 사이 북미 시장에 진출한 일본차와 한국차가 점진적으로 북미 중형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결국 ‘포드 토러스’로 대변됐던 미국의 중형차 시장은 일본차에 가깝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토러스는 싸구려 품질과 잦은 잔고장 탓에 렌터카 회사 업무용차로 혈값에 팔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맹목적으로 SUV에 집중했던 미국 빅3가 무

너지는 것도 이때였습니다.

뉴욕타임스 자동차 전문가자인 미셸린 메이너드는 그녀의 저서 ‘디트로이트의 종말(The end of Detroit)’을 통해 빅3의 몰락을 잔잔하게 풀어냈습니다. 픽업과 SUV에 집중했던 미국 빅3는 결국 고객이 원하는 차를 만들지 못했고, 수익성 높은 SUV와 픽업에만 집중하다 무너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비판한 글이었습니다.

여러 전문가와 경제학자가 그 시절 미국 빅3와 작금의 현대기아차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높은 대형 SUV에 집중하고, 악성 재고로 남아 있는 구형 쏘나타를 싼값에 렌터카 업체에 대량으로 판매하며, 노조에 휘둘리는 모습이 그 당시 포드와 오롯하게 닮아 있다는 겁니다.

사측에는 세계 경제와 정세를 좀 더 정밀하게 예측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영 판단만큼 중요한 것은 노사의 협력입니다. 특히 노조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격언을 마음에 담아 두기 바랍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디트로이트의 사례만이라도 연구해 노사가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junior@

## 디트로이트의 종말

## 시설 환율불안 증폭, 대외신인도 추락의 심각성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3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달러당 4.3원 오른 11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2017년 1월 9일(1177.6원)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작년 말 1116.0원에서 올 들어 54원(4.8%)이나 상승했다.

미국 경제 호황에 따른 달러 강세의 영향이 크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1분기 3.2%(연율 기준)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0.3%로 성장률이 추락했다. 수출이 4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해 경기 부진이 심화될 우려를 키운 게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최근 6거래일 동안에만 환율이 1141.8원에서 1170.0원으로 28.2원이나 뛰었다.

환율은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수출 감소로 무역흑자가 줄면서,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경상수지 적자는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한 배당금의 해외송금 규모가 일시적으로 커진 것을 감안해도, 경상수지 적자는 한국 경제의 적신호다. 여기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높이고 있다. 단기간 내 환율이 1200원대까지 치솟을 것이라 전망이 없지 않다.

물론 환율상승에는 우리 경제에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존재한다. 수입 물가 부담은 커지지만,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자·자동차·정유·철강·조선 등 주

력산업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수출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다, 우리 수출상품에 가격보다는 품질경쟁 품목이 많아져 긍정적 상관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환율이 오른다고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환차손 등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외국인 환율이 1140원을 넘어선 4월 22일 이후 주식시장에서의 매도 추세가 뚜렷하다. 5월 3일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인 150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선물시장에서는 8804억 원어치나 순매도했다.

환율의 단기간 내 급등이 금융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외국인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대거 팔아치울 경우 환율 상승을 더욱 부추기면서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외환당국이 어느 때보다 환율 변동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이유다. 무엇보다 최근의 환율 불안은 대외 변수보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약화와 경기부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는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 가치 상승을 격정해야 할 처지였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결국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알쏭투성 방사포(放射砲)와 전술유도무기(戰術誘導武器)

5월 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가 방사포와 신행 전술유도무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포는 放射砲라고 쓰며 각 글자는 ‘놓을 방’, ‘쏘 사’, ‘쇠뇌 포’라고 훈독하는데, ‘放’은 ‘넙히다’는 의미로도 쓰이는 글자이므로 放射는 “중양의 한 점으로부터 바퀴살 모양으로 넓게 내뿜치다”라는 뜻이다. 방사포는 “여러 발의 포탄을 상자형의 발사대에 넣어 동시에 발사할 수 있도록 한 포”인 것이다. 다연장(多連裝) 많이 잇달아 장착한 로켓포(multiple rocket launcher)라고도 한다.

전술유도무기란 ‘전술무기’와 ‘유도무기’가 합쳐진 말이다. 유도무기란 유도장치를 통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유도되는 무기이다. 미사일(missile)이 대표적인 유도무기인데 미사일은 대포에서 발사되는 포탄처럼 겨냥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자체의 체계 안에 사람의 감각, 신경, 두뇌에 해당하는 장치가 있음으로써 발사된 후에도 지령에 유도(誘導)되어 속도와 방향을 수정해 가며 마침내 목

표에 도달하여 명중시키는 포탄을 말한다. 한자로 번역하여 ‘유도탄’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무기는 통상 전략무기와 전술무기로 나뉜다고 한다. 전략무기는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군사기거나 산업시설 등 중요 목표를 선제공격하는 데에 사용하는 무기로서 ‘대륙간탄도(彈道:포탄이 따라가는 길)미사일 즉,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원거리 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을 이른다. 전술무기는 상대와 마주하여 싸우면서 사용하는 지대지(地對地:지상에서 지상으로 쏘), 지대공(地對空:지상에서 하늘로 쏘), 지대함(地對艦:지상에서 배를 향해 쏘) 미사일 등을 이른다. 전략무기가 전술무기보다 상위의 개념인 것이다.

북한이 어쩌자고 또 그런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북핵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대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 시스템에어컨의 선택 기준도 '무풍'

고객들에게 무풍은 곧 쾌적함이니까

삼성만의 무풍냉방으로  
고객들이 머무는 내내  
직바람 없이 시원하게

###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

자세한 제품 정보는 <https://www.samsung.com/sec/business/> 에서 만나보세요

- 무풍냉방 바람없이 더 건강하고 시원하게
- 공기청정 PM1.0필터 시스템으로 4계절 내내 더욱 깨끗하게
- 균일냉방 냉기를 더 멀리 더 빨리 전달해 넓은 공간도 빈틈없이
- 절전냉방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무풍냉방으로 전력 사용 걱정 없이

※ 미국 냉공조학회(ASHRAE)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 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합니다 ※ 공기청정은 옵션 사항입니다